

우리네 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1 9/10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6
FAX : 2275-8506 KDTA
e-mail:kdta@chollian.net
홈페이지: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가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음,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으로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83호 2001년 09/10월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이기원/

유통이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2001년 9월 15일

2	권두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유희정
4	보육정책 1	보육사업종합발전계획안 요약	이윤경
10	보육정책 2	보육사업 종합발전 계획안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의 의견	이윤경
15	교육논단	보육시설의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보육교사·학부모의 요구조사	구미진
32	현장교육 1	통일 빙고 게임	김영란
34	현장교육 2	이야기 밥주기	이현주
36	현장소식 1	경기도립창립총회를 마치고	강영신
40	현장소식 2	수도권 여름연수를 마치고	류지민
42	현장소식 3	왕초보의 어설론 곁을마	윤현진
44	현장소식 4	여름연수와 우왕청심원	유희원
46	인물탐방기	낯설지만 따뜻한 만남 - 어깨동무어린이집의 정선진 선생님	이강선주
51	어린이와 건강	육아상담 Q&A	편집부
54	어린이와 안전	안전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편집부
57	한국보육정보연구소	반편견, 다문화 교육	조인숙
61	세계의 보육현장	서울촌농 오사가 가다 2	이경녀
67	좋은 그림책소개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진실
69	영아들과의 하루	추카! 추카! 뽀뽀뽀!!	이정미
71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포구나무이야기	윤진숙
73	육아일기	놀이터에서	전경숙
75	사이버정보망	갯 별	임미란
76	세상읽기	언론세무조사를 바라보며...	박상희
78	목소리 1	이제는 보육교사가 나설 때	최순옥
80	목소리 2	방과후보육 활성화 시켜라	편집부
81	목소리 3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편집부
82	알림란		편집부
86	보육계풍향		편집부
88	소식과 소식		편집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유희정 · 한국여성개발원 수석 연구원

곳 곳에서 보육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그 논의의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왜 지금 논의에 불이 붙는 것일까. 그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등등이다.

태생도 순탄치 않았던 우리의 보육이 10돌을 맞았다. 이제 아동기의 모습에서 벗어나려나 보다. 아동기의 모습을 벗어난다는 것은 늙름해진다는 것인데 이것저것 갖추어져 멋있어 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어렵고, 또 조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과 현장의 수요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을 짚어보고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있다.

우선, 보육이 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일까.

아동의 잘 자랄 권리의 측면에서, 여성인력개발 등의 이유에서, 그리고 광의로는 국가 미래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등이다. 특히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성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여러분들의 말씀들에 동의한다. 즉 사회가 보육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즉 보건복지부는 보육발전기획단을 발족하여 '보육사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성부 역시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보육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여성개발원에서도 여성의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보육발전 기본계획'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다. 민간의 노력도 있으며,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보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논의되고 있다. 다각적으로 접근된 이러한 노력들은 최종적으로 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정리되어질 것이다.

잠시, 외국의 사례 중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을 추려본다면, OECD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서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보육정책의 방향이란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핵심적인 사회기반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탈 중앙집권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아동중심 철학에 기초하고, 0~5세 취학 전 아동을 통합하며,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현장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어 보육 프로그램, 교사, 운영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나아가 가족지원을 강화하여 가족의 건강향상, 안전한 보호, 결혼가정 붕괴가정 지원, 가난이나 사회적 불평등 가정 지원, 가족 상담, 가정경제 향상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국가중 중국은 취학전 교육을 지역사회 안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정규적인 보육 이외에 다양한 비정규 보육 실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보육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즉 지역 어린이 양육지원센터를 정비, 운영한다거나 지역 어린이 양육 네트워크만들기를 추진하는 등이다. 일본에서 역시 다양한 보육이 실천, 발전되고 있으며, 저연령아(0~2세아)보육, 연장보육, 일시적 보육의 확충 등 요구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양성에서는 위원아와 비위원아 통합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보육사업의 발전 방향은 이와 같이 보육관련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어 논의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보육철학의 확립, 보육사업의 공공화 방안, 대상 아동의 확대와 이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개발, 보급, 정부의 재정지원 활용 계획 등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으뜸 과제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 없이는 수요자들이 보육현장을 외면하게 될 것이니 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위한 보육발전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반드시 현장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점에 기초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으로 보육의 발전이 보육현장과 직결된 발전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현장의 수요자들 역시 보육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의 미래가 희망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육사업종합발전계획안 요약

정리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지난 8월 8일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종합발전계획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다음은 공청회 자료집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綜合發展計劃

보육사업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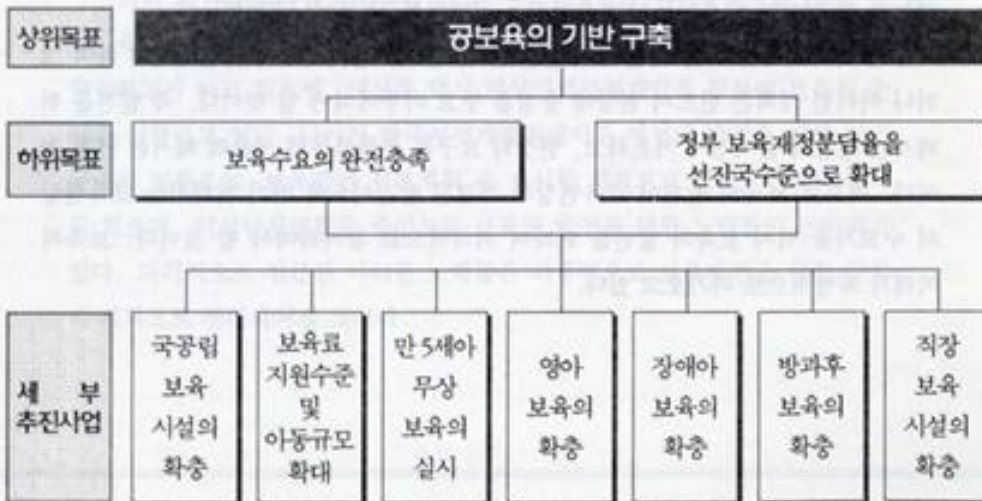
-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연령(영아, 유아, 방과후 아동), 심신의 특성(장애아, 비장애아), 거주지(농촌, 도시) 및 보호자의 경제수준(저소득층, 중산층 이상)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보호자의 소득수준 및 경제적인 부담 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적절한 보육비용을 부담하며 아동특성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는 공보육의 기반을 구축한다.

하위목표 1 - 보육수요의 완전 충족

- 2000년 현재 46.1%(686,000명)에 불과한 보육수요 충족율을 2010년까지 100%(1,342,000명)으로 완전 충족한다.

하위목표 2 - 정부 보육재정분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보육료 지원 아동의 규모 확대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총 보육비에서 차지하는 정부지원액 비율을 2000년 현재 25.2%에서 2010년 50%로 확대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제화(2002년)하여 정부의 예산 투자액을 단계적으로 늘여나간다.

세부추진사업

1) 시설확충 계획

1.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분담율을 현 16%에서 40%로 확대, 2010년까지 5,680개소 추가 설치, 총 6,975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에서 536,800명의 아동이 이용하도록 함.
-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시설 위주로 확대

2. 보육료 지원수준 및 아동규모의 확대

표) 연도별 보육료 지원수준 및 지원대상 아동규모의 확대 계획

(단위 : %, 명)

연도	지원체계	지원대상기준				
		제1지원계층	제2지원계층	제3지원계층	제4지원계층	제5지원계층
2000년	2층 체계	법정저소득층	기타저소득층			
	지 원 율	100	40			
	아동규모	49,183	112,219			
2005년	3층 체계	상동	상동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5/8		
	지 원 율	100	60	40		
	아동규모	77,472	176,464	53,800		
2007년	4층 체계	상동	상동	상동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3/4	
	지 원 율	100	70	50	20	
	아동규모	85,173	194,005	59,148	59,148	
2010년	5층 체계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80% 이하
	지 원 율	100	70	50	30	20
	아동규모	96,620	220,090	67,100	67,100	59,148

- 보육료 지원아동의 비율을 현재 23.9%에서 2010년 40%로 확대
- 지역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시설규모별 표준보육단가를 산정하여 매년 고시(2003년부터)

3.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간 보육이 필요한 모든 만 5세아 아동에 대해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는 현재에도 보육료 면제(무상보육)가 실시 중이므로 이를 제외한 아동이 무상보육 실시 계획 대상임.

표) 만5세아 무상보육 연도별 실시 계획

(단위 : %, 명)

년 도	기 준	인 원	비 율
2000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 만5세아 무상 보육	14,700	5.2
1단계 (2002)	농어촌지역거주 아동 중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만5세아를 제외한 아동의 무상 보육	48,040	17.1
2단계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거주 아동 중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만5세아를 제외한 아동의 무상 보육	158,740	56.6
3단계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아동 중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만5세아를 제외한 아동의 무상 보육	280,029	100.0

4. 영아보육의 확충

-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확충하고(2000년 현재 74개소→2010년 1,000개소) 영아전담교사 자격기준을 마련 함. 영아전담시설 설치기준을 15인으로 완화하고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영아전담보육교사에게 특수직무수당 지급, 0세아는 교사대 아동비율을 1:5→1:3으로 조정
- 영아전담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 시설장) 보육시설 시설장자격자로 ① 영아보육 직무교육 이수자 ② 간호사 자격 소지자(보육교사) 2급 이상 보육교사 중 40시간의 별도 직무교육 이수한 자
 - 간호사) 영아보육교사 3명당 1명은 간호사 자격소지 보육교사로 함
- 국공립보육시설 영아반 설치 의무화. 영아반 2개반 이상 설치 시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 재정 지원
- 공공가정보육모사업 도입 검토
 - 시군구에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이상을 공공가정보육센터로 지정하여 가정에서 영아를 돌보는 가정보육모를 훈련, 지도,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5. 장애아보육의 확충

- 장애아 무상 보육 전국 확대
 - 6세이하 아동 중 뇌병변장애, 정신지체, 자폐아를 장애아 보육 대상자로 봄

표 1-5. 장애아 무상보육 연도별 실시 계획

(단위 : %, 명)

년 도	기 준	인 원	비 율
2000	법정 저소득층 가구 장애아동 무상 보육	468	7.2
2003	기타 저소득층 가구 장애아동 무상 보육(현재 40% 감면대상)	1,066	16.4
2004	도시가계 평균소득 이하 가구 장애아동 무상 보육	3,900	60.0
2005	보육시설 이용 모든 장애아동 무상 보육	6,500	100.0

-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 시설장)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자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이수자, 또는 특수교사 자격자로 보육경력자(대졸 4년 경력, 전문대졸 6년 경력)로 함(보육교사) 2급이상 보육교사 중 180시간의 별도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 특수교사) 장애아동 9인당 특수교사 1인 배치
-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전담시설보다 통합보육을 강화, 특수보육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조정하고 정원 외 장애아동 15인당 치료사 1인 지원, 장애아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 중앙에 장애아 보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2003년)

6. 방과후보육의 확충

- 시설확충 - 2000년 현재 183개소→2010년 2,000개소로 방과후보육전담시설 확충
 - 기존 어린이집, 복지관,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하여 설치.
 - 시설설치기준을 3층이하로 완화
- 방과후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 시설장)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자 또는 초등교사자격을 가진 보육경력자(4년 경력)로 별도의 방과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전문대이상 학력자로 1급 보육교사 중 18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 초등교사 자격소지자 중 18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 활성화 방안 - 교사대 아동비율을 1:25로 조정, 국공립보육시설에 방과후반 설치 유도
민간어린이집, 공부방, 주민자치센터에 방과후반 설치 유도 -설치시 인건비 등 지원

7.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 설치 의무조항을 권장조항으로 개정하고 설치시 재정지원, 세제감면을 확대 등을 통해 설치를 유도, 직장보육시설 설치보다는 지역사회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유도 함.

2) 보육인력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1. 자격기준 강화

- 자격기준 - 시설장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에서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강화
보육교사는 현행 2등급 체계에서 3등급 체계로 조정
- 자격증 발급 - 자격 인정여부 결정 후 자격증을 발급하는 자격검정 절차 확립.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업무를 민간에 위탁

2. 양성체계 확립

- 관련학과 제한 규정 폐지, 필수 5개과목, 선택 7개과목 등 12개과목 총 36학점 이수.
보육교사교육원은 현행 38과목에서 24과목으로 축소하고 보육실습을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상향조정하여 3급 교사 양성

3. 보수교육

- 일반보수를 현행 20~40시간에서 최소 40시간으로, 승급교육을 현행 40시간에서 최소 80시간으로 연장, 재교육 연한을 현행 3년마다에서 2년으로 조정. 방과후,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별도의 보수교육과정 마련

4. 처우개선

- 보육교사 임금을 초등학교사 수준으로 인상(2010년까지)

표준보육단가 산정시 보육교사 보수를 초등학교사 수준으로 반영(2002년)

법정근로시간(8시간) 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보육시설 내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시설장, 부시설장, 주임교사) 지급하되 평가인증제를 통한 우수시설에 우선 시행.

경력과 학력을 인정한 단일보수체제로 봉급체계 개선

-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 인력 풀(pool)을 마련하고 대체교사 인건비를 중앙 및 시도에서 지원함(2003년)
- 보육교사 신분보장을 위해 부당 징계, 해고, 임면에 대해 재심, 구제할 장치 마련(2002년)
- 보육교사 신분보장을 위한 보육교사 복무규정 마련(2002년)
- 보육인의 날 제정 - 매년 5월 20일을 보육인의 날로 제정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

3)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 및 프로그램 제공

-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
- 물리적, 인적 보육환경 개선 - 신고제를 인가제로 환원, 차량운행 지침 마련
보육대상 아동 특성별 시설설치·설비 기준 마련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휴일, 야간, 24시간 보육 등 제공

4) 효율적인 보육행정 지원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에 보육전담공무원 최소 1인 배치하고 년 1회 40시간이상 보수교육 실시
- 보육업무표준화 및 전산, 통계 시스템 구축
- 광역자치단체에 보육정보센터 설치 의무화,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정책평가위원회 설치(위원은 보육전문가, 시설별 종사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연 4회 이상 개최, 보육과정,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및 평가업무 담당
- 중앙 및 자치단체는 지역보육계획 3개년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 정기적인 보육실태조사 실시
- 평가인증제도 도입(2005년까지)하고 보육과정에 대한 지도 및 평가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평가단 구성

보육사업 종합발전 계획안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의 의견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복지부는 지난 8월 8일 공청회 자리에서 2010년까지 진행될 보육사업 종합발전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의 세월동안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최근의 출산율 하락과 모성관련법 개정이라는 사회적 변화는 양육문제해결과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시설의 확충과 보육료 지원의 확대, 영아, 장애아, 방과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등 복지부의 발표는 현재 요구되는 많은 내용을 포함한 보육사업 전반에 걸친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보육교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 자격제도, 재교육, 처우 등에 대한 개선안은 그 동안의 현장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재고해야 할 점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단순히 시설확충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공립시설의 비율을 높이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시설을 신축하는 방식 이외에 비영리로 운영되는 민간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국공립시설과 같은 역할과 기능의 공공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원과 관리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 공공성은 국공립시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모든 보육시설이 본질적으로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공성 확보의 문제는 국공립시설확충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개인시설까지 공익성을 지키며 운영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시설 평가를 통해 우수시설(이 경우 형식적, 물리적인 평가보다는 내용적, 질적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로 인정받은 시설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철저히 하게 관리, 감독, 지도하여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공립시설의 신축은 각 지역의 지역별 보육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예측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국공립시설의 비율을 높이는 것 뿐 만 아니라 정부지원시설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

우선 투자지역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지역 등 보육취약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가구의 분포가 조밀하지 않고 아동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시설을 세우기 보다는 소규모의 시설을 마을단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의 확충계획은 전체아동수 대 시설수로 나누어보면 70~80명 규모의 중대형 시설로 상정하고 있다. 인구수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육규모를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셋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이 상향조정되고 교사 대 아동비율이 하향조정 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이나 보육환경의 개선 등 전체적으로 보육비용의 상승요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산층(도시가구평균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는 보육료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육료의 지원대상이 가구별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중간층의 경우 지금보다 많은 보육료의 부담을 안게 된다는 뜻이다. 양육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보육료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여야 한다. 또 보육비용의 지원이 주간보육만이 아니라 야간보육 등 연장보육비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야간보육비용은 현재 보육료의 150%까지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시간 근무를 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상당한 비용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출되는 총 보육비용에 대해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

영아보육활성화 방안에서 전담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존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시설에서 영아를 일정비율이상 담당하도록 하여 가정과 가까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공립시설에 영아반을 설치할 경우(비율을 명문화해야 한다) 영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개보수비도 지원하여야 한다.

영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이 가장 좋다고 할 때 가정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시설기준을 명시하여 기준에 충족되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정보육시설을 지원할 경우에도 영아전담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영아보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담시설의 경우 영아보육교사 3인당 1인은 반드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보육교사 처우수준으로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간호전담이 아닌 보육교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경우 영아의 건강관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영아의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촉탁 의사제도나 시설과 연계되는 지정병원제도를 병행하고 간호사는 그 역할을 간호전담으로 하여 시설당 1인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

공공가정보육모데도는 현재 어떤 기준도 없이 난립해 있는 베이비시터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공립시설에서 가정보육모를 훈련, 지도, 감독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설사 전담인력이 배치된다고 해도) 보육시설의 역할은 지역내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방식도 보육서비스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으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여부, 영유아보육담당자로서의 역할규정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단 현재 운영되는 베이비시터 알선업체나 가정보육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

장애아보육에 있어 이미 장애관정을 받은 아동 외에도 장애아의 조기발견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이라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센터 등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보육에서 무상지원대상의 범위를 좀더 넓혀야 한다. 계획안에는 뇌병변장애, 정신지체, 자폐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신체장애, 발달장애아 등 통합보육이 가능한 모든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일곱

방과후보육은 전담시설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는 영유아와는 발달적 특성이나 생활리듬이 현격히 다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고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설치기준을 건물의 3층 이하로 완화한다면 철저한 안전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과후 보육의 경우 특성상 혼합연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최대 1대20의 수준으로 해야 실질적인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국공립시설내 에 방과후반을 설치한다면 별도의 보육실 공간과 놀이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

보수교육 - 보수교육을 의무조항으로 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육교사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을 차례가 되면 해당자가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은 최소한 분기별로 진행하여 방학 없이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시설의 형편에

맞는 시간을 이용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기관을 다양화하여 새로운 이론과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아홉

보육교사 처우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단지 국공립시설에만 국한하여서는 안 된다. 보육시설에 따라 처우가 차이가 나면 그만큼 보육교사의 질이나 보육의 질에 차이가 생기고 아이들은 어느 시설에 다니는지에 따라 차별적 환경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민간시설도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임면보고와 자격관리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대체교사의 활용은 보육교사들의 교육과 휴가 등 질 관리와 재충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식으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러한 임시직을 활성화하려면 최소한 대체교사들의 경력을 제대로 관리해 주어야 한다. 일한 경력을 모아서 일정정도 기간을 채우면 일반 보육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나 징계에 대해 구제요청을 할 수 있는 담당기관을 마련하고 시정명령권 등의 권한을 주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의 보육정책평가위원회에는 반드시 시설장과 보육교사, 부모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 내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처우와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휴가사용, 보험가입의 실시여부를 관리하여 시설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장시간 근무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소진을 생각할 때 오히려 장시간 근무제도를 고착화 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교대근무나 비상근교사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업무수행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열

물리적, 인적 환경의 개선

아동비율의 제조정을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계획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국보육교사회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아동연령에 따른 교사대 아동비율

교사대 아동비율	1:3	1:4	1:7	1:12	1:15	1:18	1:20
아동연령	0-12월	13-24월	25-36월	37-48월	49-60월	취학전 1년	방과후

영아반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을 교사 2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지만 36개월이상 유아의 경우에는 교사 2인을 기준으로 하면 한 교실 공간 안에 20명에서 많게는 40여명까지 유아들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한 보육실 공간 안에 전체 유아수가 20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생활공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보육시설은 안전과 위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장시간 시설 내에 있는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할 때 바깥놀이 시설(또는 대 근육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시설별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의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을 연령에 따라(활동과 발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보육시설 전체면적이 아닌 보육실 면적을 기준으로 정원수를 결정해야 한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차량운행은 원칙으로 반대한다.(가정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규모의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운행은 특별한 경우에만 농어촌 등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관리해야 한다.

열하나

위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공립시설의 위탁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마련이 필요하다.

열둘

보육교사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3급 체계로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학력이 질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방과후보육교사의 자격을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한다면 영유아보육교사의 자격기준도 거기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제 보육은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수행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전계획이 단순한 전시용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예산확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일할 권리, 보육교사의 일할 권리,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보육을 기대한다.

보육시설의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보육교사 · 학부모의 요구조사

The role of child-care center in community social service :
parents' and child-care teacher's demand

구미진 · 서울, 이화여린이집 교사

아래의 글은 구미진 선생님이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Abstract>

The study is to research on parents' and child-care teachers' demands of community social service of child care center, which is a neglected part for the comprehensive care.

Community social service of child care center is comprised of four categories : community service, community public rel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mmunity resources.

The result shows that both parents and teachers agree that child care center need to provide more community social services. However, parents in general demand more of community social services than teachers.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irst, a variety of community social service programs(items) for child care centers should be developed and popularized. Second, better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ommunity social service should be devised. Third, education on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needs to be offered regularly to teachers. Fourth, parents need to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actively in child care center programs.

To promote community social service program is to build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children, their families and the neighborhood, and it will strength child care center's role in community.

I. 서론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기반으로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에 대한 양적 요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지금, 부모의 양육을 대신할 질 좋은 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보육은 보호와 교육기능을 통합한 보호, 교육에 바탕을 두고 아동 개인의 건강한 발달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최근에는 아동의 발달을 보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속한 가족 및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이후 보육시설을 단순한 보호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적, 사회적 서비스까지도 제공하는 지역사회 센터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Decker & Decker(1984)에 의하면 보호적 보육, 발달적 보육, 포괄적 보육은 역사적 과정으로 포괄적 보육이 보호, 발달적 보육보다 진보된 형태이다. 또한 Khetani(1984)는 보육의 주목적이 아동의 보호에 있지만 보육시설에서 아동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보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보육시설이 주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이나 여타 기관과의 조정 협력이 없다면 보육시설은 비지속성 및 비접근성과 같은 문제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포괄적 보육서비스란 보육을 아동 및 취업부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서비스로 인식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박현선, 1987, 정영숙, 1998). 따라서 포괄적 보육서비스에서는 아동과 주변 환경의 상호교류를 보육서비스 기능의 한 부분으로 전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사회적 서비스를 인식하는 것은 현재 우리 보육계의 상황,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역할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육서비스는 아동 개인의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유치원과 구분되는 개별아동에 대한 지원과 아동의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에 관한 몇몇 연구(이경남, 1989, 박현선, 1993, 정영숙, 1998, 백선희, 1999)가 있는데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졌다. 초기 연구로는 이경남(1989)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새마을 유아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초기과정, 적응과정, 의뢰의 틀에 비추어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에서 의뢰에서 아동이나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박현선(1993)의 경우에도 사회적 서비스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역사회서비스와 관계된 내용으로 주로 문제를 지닌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

다. 또한 정영숙(1998)은 지역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사회적 서비스의 실시수준 및 학부모의 요구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연령이 낮아질수록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며 부모의 요구보다 실시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1997) 및 김영모(1998)는 전국적으로 유아와 부모의 아동보육요구를 평가한 결과 성별, 계층간, 자녀의 연령대별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에 따라 요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6세아의 부모의 경우 아동발달과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주된교육을 가장 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육아문제 상담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백선희(1999)의 연구결과 지역사회서비스 중에서 교사, 학부모 모두 지역사회 홍보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의 지역사회봉사에 가장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경우는 교사의 요구가 높았다.

종합하면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여 접근하였기 때문에 중요성에 비하여 그 비중이 적게 다루어졌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은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며 보육시설 내에서의 일상적인 보육서비스와는 별도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이 취업모의 지원과 저소득층의 박탈된 환경의 지원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보육시설이 공공기관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보육의 민간의존도가 83.6%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지역사회복지시설로의 인식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실행자이며 동시에 서비스 대상자이기도한 학부모의 참여요구와 지역사회서비스의 주 실행자인 교사의 요구를 알아보아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학부모와 교사의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목적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요구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요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보육시설, 가정, 지역사회간의 관계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취업모의 증가는 보육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보육시설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거시적 사회변동은 가정 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다시 가정내의 변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등 변화는 변화를 요구하면서 인간과 환경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서비스에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인 가족, 가족이 속해있는 지역사회, 더 넓게는 전체 사회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의 안정을 위하여 부모-자녀관계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부모-자녀관계는 취업모의 직장만족도와 관련 있으며, 취업모의 직장만족도는 위탁양육의 만족도와 관련된다. 그런데 다양한 특별보육(방과후 보육, 시간제 보육 등)이 활성화된다면 부모는 다양한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이는 원만한 부부관계 및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 즉, 가족 내의 아동의 사회화는 가족과 가족 밖의 사회적 환경과의 밀접한 상관성 속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대상 아동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시설에서는 이러한 상호 관계를 촉진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은 아동을 매개로 가정, 보육시설, 지역사회간의 연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지역사회 복지시설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가정과의 연계를 통하여 일관된 양육환경을 모색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의 자원을 보충할 수 있고 보육시설의 홍보도 할 수 있다. 가정의 입장에서는 보육정보를 이용하고 보육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가정의 양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지역사회복지시설을 지역에 존재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충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개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때 기혼여성의 노동력은 보다 안정되고 그 가족의 소득이 증가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된다. 현재 보육서비스는 보통 12시간 보육으로 기본적 보육요구는 충족시키고 있지만 다양한 노동시간에 따른 요구는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저 연령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다가 결혼과 육아의 시기인 20대 후반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점에서 적절한 보육은 여성의 취업활동에 필수적이며 다양한 보육시간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취업모를 지원하는 것이다(조홍식 외, 2000).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우 취업률은 높지만 단순생산적으로 근로시간이 길고 저임금이다. 이들이 야간 및 철야근무를 하게 된다면 12시간의 보육만으로는 아동은 방임의 위기에 있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다양한 근무시

간에 따라 특별보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 보육서비스의 구성요소

Khetani(1984)는 보육서비스를 일상적 서비스인가 비일상적 서비스인가에 따라 발달 교육서비스, 진단, 건강, 영양서비스, 사회서비스, 정보와 의뢰 서비스의 범주로 나누었다. 또한 Kammerman과 Kahn(1976)은 보육서비스를 보호와 교육, 발달적 서비스, 개별 사회적 서비스로 나누고 있는데, 발달적 서비스에는 정신건강 서비스, 부모참여, 상담, 사회적 및 창조적 활동이 포함되며, 개별 사회적 서비스는 가족 및 아동복지에서의 사회적 서비스, 청소년 및 노인복지에서의 사회적 서비스, 장애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정보와 의뢰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센터의 서비스로 나누고 있다.

보육의 사회적 필요성에 가장 관심을 둔 것은 Head start program이다. Head start program은 1960년대 빈곤의 세습화를 막기 위하여 시작되어 빈곤 아동에게 교육과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를 교육시키고, 보육과정에 부모를 참여시키면서 부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서비스와 자원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Head start는 빈곤문제와 더불어 편부모 가정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Head start에서는 보육을 건강과 안전, 사회서비스, 부모참여 및 교육, 아동교육, 심리적 서비스, 직업교육으로 나누고 있다.(위영희, 1993; 김미경, 1998)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지침(2000)에서 보육의 기본원칙을 교육, 영양, 건강, 안정, 지역사회의 교류로 나누고 있다. 지역사회의 교류의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인사의 보육활동에의 참여, 지역사회 보육시설 활용, 보육시설의 지역사회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에는 보육시설과 지역간 상호작용 교환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의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복지센터로의 역할부여는 없다.

3.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의 영역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탐구와 상호작용의 장,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장으로 아동의 경험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교육의 목표이며 적응의 장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처럼 보육시설의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보육아동에게 사회통합의 가치를 학습시키고 체험하게 하여 아동이 공동체로써 삶을 경험하여 미래의 이상적인 인간행이 지니는 협동심, 이타심 등이 배양 되게 하는 것이다(백선희, 1998). 즉, 아동은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 미래를 책임 질 주체이며 사회의 일

원으로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육시설과 지역사회는 아동보육에서 연대책임을 가져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은 공공시설이며 국민의 조세로 지원 받고 있다는 면에서 사회적 공공자원으로 아동,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상호혜택을 입는 공익사업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 기인하여 대두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지역사회 서비스란 보육시설이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제시하는 다양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하여 Ross(1985)는 지역사회봉사, 지역사회홍보, 지역사회참여를 포함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역사회봉사는 지역사회내의 집단 또는 전체 지역사회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홍보는 조직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자기의 지위 및 업무를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광고, 새로운 보고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말한다.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 생활에 집단 또는 기관 및 위원회로서 참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를 통해 다른 기관과의 연대, 서비스의 조정, 유지 및 관련을 가질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백선희(1999)는 Ross의 정의에 지역사회자원동원의 영역을 추가하였다. 지역사회자원동원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또는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각각의 영역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봉사는 지역사회 내의 기관으로 보육시설의 의무를 다하는 방안이 되며 아동들에게는 사회통합의 가치를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복지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한다(김은실, 1998). 지역사회홍보는 지역사회에 보육시설의 존재와 그 업무를 알려 보육시설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보육에 관한 관심을 구하게 한다. 지역사회홍보의 주된 목적이 보육시설의 홍보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라 하기에는 무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육시설과 지역사회간의 상호이해를 돕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참여는 보육기관의 행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거나 보육기관이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양은희, 1997). 지역사회 자원의 동원을 통해 아동은 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은 부족한 자원을 보충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보육시설의 서비스에 이용하며 보육시설이 지니고 있는 아동에 대한 많은 정보와 기술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보육시설과 지역사회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현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강남구와 도봉구에 위치한 보육시설로 보육시설의 운영형태별로 각기 동일한 수를 배정, 배포하였다. 직장보육시설은 그 수가 적어 전수조사 하였다. 교사용은 127부가 회수되었으며 처리불가 2부를 제외한 125부, 학부모용은 133부가 회수되었으며 처리불가 5부를 제외한 128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2. 측정도구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를 백선희(1998)의 영역을 기준으로 지역사회봉사, 지역사회홍보,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자원동원의 4가지로 나눈 후 보건복지부(1998)에서 발행한 유아보육 프로그램에 제시된 프로그램을 분류, 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이 후 보육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질문지는 교사와 학부모용인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지역사회봉사 17문항, 지역사회홍보 4문항, 지역사회참여 2문항, 지역사회자원동원 8문항 등 총 34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측정한 결과 지역사회봉사(17문항) = .85, 지역사회홍보(4문항) = .84, 지역사회참여(2문항) = .49, 지역사회자원동원(8문항) = .74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부모, 교사의 일반적 배경변수와 각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성과 학부모, 교사의 요구수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Scheffe 및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보육시설과 교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유형은 민간

보육시설(종교 법인시설 포함)이 52.8%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거주형태는 일반주택가 48.0%, 아파트 지역이 43.2%로 각기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경제수준은 중류층이 44.8%, 하류층 36.8%, 상류층 18.4%로 중류층이 가장 많다. 교사의 근무경력은 2~4년 미만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 미만이 21.6%를 이루고 있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43.2%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 24.0%,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표 1> 보육시설과 교사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도 (%)	합 계
운영형태	국공립 보육시설	39(31.2)	125(100.0)
	민간 보육시설 (종교 법인시설 포함)	66(52.8)	
	직장 보육시설	2(1.6)	
	가정 보육시설	18(14.4)	
거주형태	아파트 지역	54(43.2)	
	공단지역	1(0.8)	
	상업지역	4(3.2)	
	일반 주택가	60(48.0)	
	재개발 지역	6(4.8)	
경제수준	상류층	23(18.4)	
	중류층	56(44.8)	
	하류층	46(36.8)	
교사의 근무경력	1년 미만	27(21.6)	
	2~4년 미만	58(46.4)	
	5~6년 미만	20(16.0)	
	6년 이상	20(16.0)	
교사의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졸업	26(20.8)	
	전문대 졸업	54(43.2)	
	대 졸업	30(24.0)	
	대학원 졸업이상	5(4.0)	
	기 타	5(4.0)	
	무응답	5(4.0)	
교사의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1.2급	41(32.8)	
	사회복지사	11(8.8)	
	보육교사 1급	29(23.2)	
	보육교사 2급	38(30.4)	
	기 타	3(2.4)	
	무응답	3(2.4)	

가 20.8%이다. 자격은 유치원 정교사 1.2급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 2급이 30.4%로 많았다.

2)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

<표 2>를 보면 조사대상자인 학부모와 아동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96.9%, 아버지가 3.1%로 어머니 응답자가 월등히 많으며 학부모의 연령은 30~35세 미만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30세 미만이 21.1%이었다. 이와 같이 35세 미만이 77.4%로 과반수가 훌쩍 넘는다. 학력은 고졸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졸이 28.9%이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보육료 감감대상인 120만원 이하가 21.1%이고, 120~220만원이 61.7%로서 참고적으로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인 220만원 미만 가정이 82.8%이다.

<표 2> 학부모의 일반적 배경변수

일반적 배경변수	구 분	빈도 (%)	합 계
관계	모	124(96.9)	125(100.0)
	부	4(3.1)	
나이	30세 미만	27(21.1)	125(100.0)
	30~35세 미만	72(56.3)	
	35~40세 미만	23(18.0)	
	40세 이상	6(4.7)	
학력	고졸	45(35.2)	125(100.0)
	전문대 졸업	28(21.9)	
	대 졸업	37(28.9)	
	대학원 졸업이상	6(4.7)	
	기 타	6(4.7)	
	무응답	6(4.7)	
경제수준	120만원 이하	27(21.1)	125(100.0)
	120~220만원 이하	79(61.7)	
	220~300만원 이하	17(13.3)	
	300만원 이상	5(3.9)	

2. 학부모, 교사의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

1) 지역사회봉사

지역사회봉사 영역 중 우선 특별보육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듯이 학부모는 특별보육의 서비스에 대해 보통 또는 보통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방과후보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제보육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통계적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요구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 방과후 보육, 24시간 보육으로 모두 학부모의 요구가 교사보다 높다. 야간보육에 대한 요구에서는 학부모와 교사간 차이가 없었다.

<표 3> 특별보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요구수준 차이

서비스명	대 상	평균	T 값
일시보육	교사	3.28	2.57*
	학부모	2.88	
시간제 보육	교사	3.26	2.69**
	학부모	2.51	
방과후 보육	교사	2.60	3.37***
	학부모	2.06	
24시간 보육	교사	3.77	3.18**
	학부모	3.28	
야간보육	교사	3.32	1.45
	학부모	3.10	

*p < .05, **p < .01, ***p < .001

<표 4> 지역사회봉사 영역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요구수준

서비스명	대 상	평균	T 값
보육시설의 놀이터 등 시설 개방	교사	2.72	3.35***
	학부모	2.20	
보육시설의 실내공간을 개방	교사	3.36	3.53***
	학부모	2.78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이 함께 하는 놀이마당	교사	2.84	1.73**
	학부모	2.60	
육아상담	교사	2.60	4.26***
	학부모	1.99	

서비스명	대 상	평균	T 값
노인을 위한 재봉잔치	교사	3.07	2.76**
	학부모	2.64	
사랑의 빵에 모금하기등 모금활동	교사	2.44	.84
	학부모	2.31	
쓰레기 줍기	교사	2.45	2.14*
	학부모	2.12	
지역아동을 위한 어린이 극장	교사	2.70	4.37***
	학부모	1.97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	교사	3.05	3.71***
	학부모	2.42	
실습생 교육	교사	2.08	.89
	학부모	1.96	
결식아동, 결식노인 급식사업	교사	3.02	3.96***
	학부모	2.44	
아동발달 및 교육에 관한 강연회	교사	2.09	1.19
	학부모	1.92	

*p < .05, **p < .01, ***p < .001

<표 4>에서와 같이 특별보육을 제외한 지역사회봉사의 영역에서는 학부모의 요구수준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아동발달 및 교육에 관한 강연회이며 실습생 교육, 어린이 극장, 육아 상담, 쓰레기 줍기의 순서이며 교사의 요구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은 실습생 교육, 아동발달 및 교육에 관한 강연회, 쓰레기 줍기, 모금활동, 육아상담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소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서비스는 교사도 비슷한 요구의 우선 순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간의 요구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놀이터 등 보육시설 개방, 보육시설의 실내공간 개방, 보육시설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육아상담, 노인을 위한 재봉잔치, 쓰레기 줍기, 지역아동을 위하여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용 연극 및 영화의 상영, 장난감과 도서대여, 결식아동 및 결식노인 급식사업의 실시에서 학부모의 요구가 교사의 요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사의 경우 지역사회봉사의 역할을 업무부담 증가로 여기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 지역사회홍보

지역사회봉사영역에 비해 지역사회홍보 영역에서는 학부모와 교사간 요구수준의 큰 차이

는 없다. <표 5>에서와 같이 보육시설의 소식지 만들기에서만 학부모의 요구가 교사의 요구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지역사회홍보에 대하여 추가적 업무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것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육시설의 지역사회홍보가 단순한 보육시설의 홍보에 그치지 않고 보육시설이 갖고있는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작업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지역사회홍보 영역의 학부모, 교사의 요구수준 차이

서비스명	대 상	평균	T 값
보육시설의 소식지를 만든다.	교사	2.63	2.80**
	학부모	2.22	
보육시설의 홈페이지, 통신 등을 활용한다.	교사	2.24	.97
	학부모	2.10	
보육시설의 홍보지 및 리플렛을 만든다.	교사	2.26	-.71
	학부모	2.35	
보육시설의 홍보를 위하여 지역신문을 이용한다.	교사	2.56	.38
	학부모	2.50	

** p < .01

3) 지역사회참여

<표 6>에서와 같이 지역사회참여 영역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보통 내지 보통이상의 요구도를 갖고 있다. 학부모의 요구가 교사의 요구보다 높은 것은 지역사회행사에의 보육시설의 참여에 대한 것이다.

<표 6> 지역사회참여 영역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요구수준 차이

서비스명	대 상	평균	T 값
보육시설의 행사에 지역주민의 참여	교사	2.52	-.32
	학부모	2.64	
지역사회행사에 보육시설의 참여	교사	2.80	2.4*
	학부모	2.46	

* p < .05

4) 지역사회자원동원

지역사회동원에서 학부모, 교사의 요구가 모두 높은 서비스는 <표 7>에서와 같이 자연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이와 같은 것은 어린이집에서 외부활동을 매우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학부모가 교사보다 요구수준이 높은 것은 교재, 교구 만들기에 활용, 환경정리 지원인력으로 활용, 지역사회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맺기, 바자회 등 모금활동의 서비스에서 요구가 높다.

<표 7> 지역사회자원동원 영역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요구수준 차이

서비스명	대 상	평균	T 값
일일 자원봉사로 활용	교사	2.83	1.956
	학부모	2.54	
교재, 교구 만들기	교사	3.15	3.10**
	학부모	2.72	
환경정리 지원인력으로 활용	교사	3.17	2.92**
	학부모	2.78	
지역사회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맺기	교사	2.22	2.98**
	학부모	1.85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	교사	2.04	.75
	학부모	1.89	
바자회등 모금활동	교사	2.82	2.26*
	학부모	2.50	
자연환경 이용	교사	1.88	.48
	학부모	1.82	
보육시설 관련단체와 연계	교사	2.14	.26
	학부모	2.05	

*p < .05 **p < .01

5) 지역사회서비스 영역별 검증

이상과 같이 대체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하여 학부모의 요구가 교사의 요구보다 높았다. 학부모는 보통이다 에서 보통 이상 필요하다는 사이에서 응답하는 경향이고 반면 교사는 보통이다 에서 보통이하로 필요하다는 사이에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에게는 현재 보육시설의 열악한 상황에서 무리라고 생각하고있으며 교사가 아동의 보육이외의 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업무의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교사의 교육경험

조사대상 교사의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하여 38.4%의 교사만이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며 61.6%의 교사는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보육의 기본원칙인 지역사회와의 교류부분이 교육내용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교육받은 방법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는데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졸업 후에 연수 과정을 통하여가 26.7%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24%, 서적과 잡지를 통하여 15%로 나타나고 있다. 전공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인력부족이 심각한 보육현장에서 보수교육만으로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를 새롭게 인식하기는 어렵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시 전공 교육과정에서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교육경험

교육경험	빈도
졸업 전에 전공 교육과정을 통하여	14(18.7)
졸업 후에 연수과정을 통하여	20(26.7)
서적과 잡지를 통하여	15(20.0)
방송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6(8.0)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18(24.0)
기 타	2(2.7)
합 계	75(100.0)

V. 논의 및 결론

보육시설은 보육아동, 가족, 지역사회간의 긴밀한 연계통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역의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의 요구가 모두 높은 서비스로는 지역사회 자원이용과 지역사회 봉사 영역이며, 그 구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자연환경의 이용, 지역사회시설의 활용, 다른 보육시설관련단체와의 연계이다. 또한 아동발달 및 교육에 대한 강연회나 육아상담에 관한 요구도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영숙(1998)의 연구에서 대구지역의 학부모의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백선희(1999)의 연구결과에서 학부모의 경우 지역사회 봉사영역이 가장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결과는 백선희의 연구에서는 두 군데의 시설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본 연구와 조사대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부모, 교사의 아동, 가족, 지역사회, 시설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는데 높은 인식만큼 보육시설이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고 아동과 같이 있는 시간이 12시간인 상황에서 아동의 보육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교사가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육이 높은 질적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서비스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보육시설은 보육을 매개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아동, 가족, 지역사회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교사, 학부모의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경우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하여 교육받은 경험은 38.4%만이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졸업 후 연수과정을 통하여서이다.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도 하고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의 공익성의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취득시 전공 교육과정에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경우도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습득과 더불어 스스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주체로써 설 수 있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둘째, 학부모에게 보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 부모의 참여수준은 낮는데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부모가 교사보다 전 영역에 걸쳐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보육시설에서는 부모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보육프로그램에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적, 제도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보육사업지침은 매년 발행되면서 보육시설에서 보육사업의 진행에 있어 기준이 되는데 보육사업지침에 언급된 '지역사회서비스'의 내용이 추상적이라 실시를 위한 지침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보육사업지침에 '지역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보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앞선 요구조사에 의하면 교사는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하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시가 어렵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인건비 지원으로 인한 대체교사, 임시교사, 시간제 교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민간의존도가 70%가 넘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으로의 보육시설의 역할이 당장 전환되기는 어렵겠지만 민간시설에 정부지원을 늘려가면서 지역복지기관으로의 보육시설 활용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며 지역적 특성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에 지역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지역에 관계된 정보, 예를 들어 전반적인 세대구성 비율, 경제적 수준, 노동시간, 지역에 위치한 시설 및 활용 가능한 정보의 제공은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내용 및 대상을 선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곳으로 지역에 위치한 보육정보센터를 제안한다. 각 지역별로 보육정보센터가 개설, 운영되고 있으며 앞의 역할은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없었던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라는 중요한 영역에 대한 실증적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국공립 시설이 아닌 민간, 가정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 학부모로 이는 국공립보다 열악한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요구파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의 경제적 수준 및 좀 더 다양한 지역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과제로는 지역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방향성, 지역적 특성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경(1998), 헤드스타트 교육아카데미.
 김은실(1998), 지역사회학교 활동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어머니회 활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영모, 김진이, 백선희, 장연인(1998), 아동보육요구와 보육프로그램 평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영모, 표갑수(1998), 신진국 아동보육제도와 보육 프로그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영모, 홍금자, 장연인, 김진이, 백선희(1998),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기본모형, 한국복지정책연구소.
 박현선(1993), 통합적 탁아서비스의 적용에 관한 연구 - 통합적 탁아서비스 요구 및 통합성 실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1999), 부모참여 프로그램 1 II III.
 보건복지부(1998), 유아보육 프로그램 1-12.
 보건복지부(2000), 보육사업지침.
 백선희(1998), 아동보육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기본 모형, 한국영유아보육학, 13, 139-175.
 백선희(1999), 아동보육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봉사정보안내센터(1996), 자원봉사 이렇게 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5.
 이경남(1989), 새마을 유아원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양은화(1997),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의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영희(1993),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로서의 탁아, 탁아연구, 양서원.
 양옥승(1991), 탁아연구 II-교육적 접근, 양서원.
 임재택(1990), 세계 주요 8개국 탁아제도와 정책의 분석, 부산대 여성학 연구, 2(1), 66-107.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민자치연구모임 옮김, (1994), 지역보육운동 - 아이들에게 사는 보람, 스즈끼 쇼조 지음, 주민자치사.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정영숙(1998), 보육시설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실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희연(1997), 서울시 민간 가정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질 평가, 한국 보육정보연구소, 서울시 민간 가정보육시설연합회.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1993),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공동육아제도의 전망, 한울.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1996), 제1회 아동복지시설 총무세미나-아동복지시설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지역사회 아동복지센터 확대 방안.
 Decker, G. A & Decker, J.R(1984), Planning and Administrating Early Childhood Programs,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Kammerman, S. B & Kahn, A.J.(1976), social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 Policy and programs, Temple University Press.
 Khetani, M.(1984), Measuring Comprehensiveness of Social provide at Child Day care center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 7(3), 75-88.
 Ross, M.(1985), Community Organization: Theory, Principles, and Practice, 2nd ed, New York: Harper & Brothers.

통일 빙고 게임

◆ 활동목표 : 남녘과 북녘의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 대상연령 : 5, 6, 7세

◆ 영역 및 집단구성 : 언어영역의 소그룹(3명)

◆ 준비물 : 그림카드, 기본판 1개, 게임판 2개

◆ 활용방법

- ① 북녘과 남녘의 말의 차이를 이야기해 본다.
- ② 기본판, 게임판 2개를 각각 나눠 갖고 자기 맘대로 자유롭게 그림카드를 붙인다.
- ③ 기본판을 가진 유아가 기본판의 그림카드를 한 개씩 보여주면, 게임판을 가진 유아들은 자신의 게임판에서 똑같은 그림카드를 찾아서 떼어낸다.
- ④ 정사각형의 게임판 그림카드가 아래와 같이 직선 혹은 대각선으로 떼어내진 유아는 "빙고" 라고 외치면 이긴다.

*			
	*		
		*	
			*

*	*	*	*

*			
*			
*			
*			

◆ 카드구성 및 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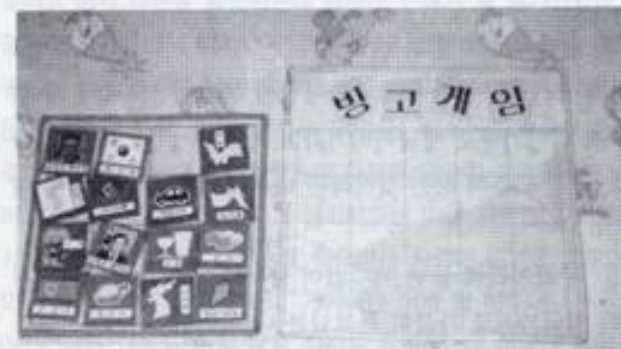
기본판은 가로 5칸, 세로 4칸, 게임판은 가로, 세로 4칸

카드의 그림은 태극기, 단일기, 인공기, 백두산, 한라산,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서울, 평양, 남북 정상회담, 끝선, 가가, 통일옷, 고무, 발바리차, 가락지빵, 라디오, 부루, 탐부린, 얼음 보숭이.

◆ 기대효과 및 유의점

자연스럽게 북과 남의 다른 점을 그림을 통하여 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국기, 대통령, 수도 등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차이: 라디오/라지오, 아이스크림/ 얼음보숭이, 슬리퍼/ 끝선, 가게/ 가가, 도우넛/ 가락지빵, 탐버린/ 탐부린, 술/ 고무, 원피스/ 통일옷, 자동차/ 발바리차, 상추/ 부루)

그림 20가지 중에서 똑같은 그림을 8가지는 2개씩 만들고, 12가지는 3개씩 만들었다. 기본판은 20칸이고, 게임판은 16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 밥주기

수도권 여름연수 준비팀으로 회의에 가야한다고 하면서부터 걱정이 많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다.

준비팀의 첫모임이 시작되고 드디어 연수하는 날!

준비팀으로서 역할이 있었음에도 내 할 일도 있고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것도 강의실 제일 앞자리에서.....

얼마나 죄송하던지, 그래도 강의를 끝날 때까지 끝까지 들었다.

처음에는 강의 내용이 좀 어려웠다. 그런데, 옛날이야기도 옛날에 살고있던 사람들의 현재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어렸을 적 이야기들도 옛날이야기라고, 동화 구연을 하는 것 이 아니라 내 호흡으로, 편한 목소리로, 눈을 맞추며 하는 것이라는 내용에서 쉽게 이야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나의 조카 소희가 만2세쯤 되었을 때 잠자리에 들면, 어김없이 할머니를 졸라 옛날이야기를 듣곤 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가끔씩 듣고있는 내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6.25 때 산골.....) 소희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도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날 때 즈음에는 어김없이 너무 슬프게 울었다. (너무 슬퍼서 울었대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편안한 호흡과 지나온 세월의 깊이가 달라서인지 엄마가 들려주는 그림책 속의 옛날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보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 많이 몰입되어 있었다. 강의를 듣고있는 중에 ‘어! 이거야.’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해보기로 했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마침 예술 공부방에서 여름캠프를 갔다. 캠프 둘째 날 비가 많이 와 캠프 화이어도 못하고 숙소에서 귀신놀이와 귀신이야기를 하게되었다.

‘내가 너희들처럼 초등학교에 다닐 때 시골 외삼촌댁에 놀러갔을 때 외숙모가 해주신 이야긴데 들어볼래? 난, 이 이야기 듣고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갔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

우리 외숙모 댁은 방이 3개 있는데 방 하나는 곡식들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책과 이불장이 있어서 모두 한방에서 자야 했거든. 그런데 시골이어서 도시처럼 환하지가 않아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자리도 낫설고 흥분해서, 누워서도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있을 때...

그래서 외숙모에게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지!

옛날 옛날에 어떤 마을에 소를 기르던 집이 있었는데, 시골에서는 매달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가을에 추수를 해야 집에 돈이 생겼거든, 그런데 그 집에서는 가을이 되기 전에 소를 장에 내다 팔아 집에 큰돈이 있었어, 그 집에 아주머니는 도둑이 들어 울까봐 어두워지기 전에 문단속을 일찍 했어.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길게 풀어 해친 머리에 입과 손톱에는 빨간 피를 물인 귀신이 캄캄한 방으로 스르르르르 들어오는거야. 아주머니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었어. 그런데 그 귀신이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 놓으라는 거야. 아주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겨놓은 돈을 꺼내왔어. 귀신은 정말 아주머니가 꺼내준 돈을 들고는 다시 스르르르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꿈이 너무나 이상했어. 꼭 생시 같았거든.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아저씨에게 이상한 꿈을 꿔다고 누가 집안에 있는 것 같으니까 찾아보라고 해서 대문을 확인했는데 대문은 안에서 꼭 잠겨있었어. 아저씨는 괜한 꿈을 꾸고는 아무도 없는데 그런다면서 어서 자라고 아주머니한테 짜증을 내고 다시 잠이 들었어. 아주머니는 또다시 귀신이 들어 울까봐 날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돈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더니 돈이 없어진 거야. 깜짝 놀란 아주머니는 아저씨를 흔들어 깨웠어. 돈이 없어졌다고.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대문을 다시 확인했는데 대문은 단단히 잠겨있었어. 그래서 아저씨는 대문이 잠겨있으니까 집안에서 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마을 사람들과 집안을 찾기 시작했어. 그런데 화장실로 찾으려간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나오는 거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라서 화장실로 갔더니 거기에는 어제 밤 아주머니가 꿈에 봤다는 그 귀신이 서 있는 거야. 아주머니는 대문도 일찍 닫고 집안도 확인했는데 어떻게 들어 왔냐고 하자 낮부터 들어와 화장실(시골의 화장실은 광장히 넓다. 면적의 반 이상은 아궁이의 재를 버리는 공간과 거미줄이 뿌옇게 앉아있고 젖터미 끝으로 가느다란 대나무가 지라고 있는 외숙모댁의 화장실을 머리에 그리며.....)에 숨어있다 모두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린 후 옷을 갈아입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밤새 불을 켜놓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 그렇게 해서 꿈속의 귀신도 잡고 돈도 찾았대. 끝-

이야기를 하면서 방안의 아이들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느껴졌고 외숙모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느낌을 아이들도 같은 무게로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도 아이들도 흥분해있었다.

경기지부 창립총회를 마치고

강영신 · 경기지부장

2001년 8월 25일, 내게는 의미 있는 날이었다.
 근 10여 년의 경력교사들이 소수정예로 있는 경기
 지부 결성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각 지부 결성들도 힘들게 준비가 되었겠지만 경기지부
 는 경기도 그대로의 특성대로 넓은 지역에(수원, 안산,
 부천) 퍼져있어 모이기도 힘들었다.

창립총회 날짜가 한 달 한 달 다가오면서 준비된 것은 없는데 과
 연 잘 치뤄 낼까 고민하다가 창립총회를 연기할까 하는 고민들도 했다.

2년여 동안 부천과 안산을 왔다갔다하면서 준비한 일들.

그 시간동안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시점의 보육계의 현실.

단순히 아이들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깊어져야 할 보육의 문제에 바로 우리
 가 앞장서 있다는 것을.....

장소 섭외, 자료집준비, 초대장 발송 및 확인, 음식물 준비, 기념품준비

미리 도착해 거리에 길 안내 표지를 붙이면서 우리를 알고도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씩 쳐다보게, 그냥 읽어라도 보게 잘 붙였다.

늘 행사는 지나고 나면 헛점이 보이기 마련이다.

좀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것을 하는 아쉬움, 예상했던 인원들이 모였지만 좀더 많이 모여
 우리에게 힘을 주었으면 하는 여운이 남았다.

이제 큰일을 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반기 사업들을 통해 더 다져지는 경기지부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지부 회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오신 분들 일일이 인사 못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지부 창립을 축하. 하. 합. 니. 다!

반갑습니다.

경기지부 회원님들!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축하의 인사를 온몸으로 하지 못하고, 글 인사로 대신해야하니 참 안타깝네
 요.

경기지부 창립의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함께 하고 싶은 맘이 열릴텐데, 애
 석하게도 저희 부산에선 그날 여름수련회가 잡혀있는지라 발목이 잡혔답니다.
 한달음에 달려가서 한자리 끼어 들어 축하해주고 나누고 경기지부회원들의 환한
 웃음과 즐거움에 퐁당 빠져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경사스런 날 부산이 함께 하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한국보육교사회의 발전에 가속도를 낼 경기지부의 창립!

첫걸음 힘있게 내딛기를 바라고 경기지역 보육교사들과 아이들의 운명을 고루
 책임지는 열정적인 지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다운 향기 잃지 않는 정답과 아름다운 경기보육교사회를 일구어
 내길 바랄게요.

진짜·진짜로 축하합니다!

*노래전송- 사랑~ 사랑~ 경기지부 우리 동지 내 사랑 경기지부 우리동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

*내 사랑 보육교사회 경기지역에 물결쳐라!

- 부산지부장 김명선-

드디어 경기지부가 새로운 탄생을 하는군요.

그런 영광스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함께 하는 자리에서 맘껏 축하해드리고 싶네요마는, 안타깝게되어 이렇게 글
 로 축하인사

대신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화이팅을 기원합니다.

- 광주, 전남지부장 이정마-



경기지부 창립을 축. 하. 합. 니. 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경기지부가 드디어 문을 여는군요.
그 동안 지회활동하며 지부건설 하느라 애쓰신 선생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원, 안산, 부원지회 선생님들이 지금 이 순간 눈에 떠오르네요.
참으로 오랫동안 보육교사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셨지요.

힘찬 지부, 사람냄새 가득한 지부가 되길 바랍니다.

- 서울지부장 김진숙 -

축하인사가 늦었습니다.

날.로.발.전.하.는.경.기.지.부. 되시길.

인천지부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 인천지부장 이인희 -

총회에서나 행사에서나 늘 자주 만나고 힘있어 보이는 경기지부 선생님들인지라, 지부창립 인사가 좀 어색하네요.

원래 경기지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희 광주는 수원샘들과 친근한 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영역을 넓혀 경기도의 모든 샘들과 관계(?)할 수 있도록 경기지부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세요.

전라도의 미려한 힘이라도 필요하신 때가 있거들랑 언제라도 불러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지부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다시 한번, 감 축!!

- 광주전남지부 총무 박화영 -



경기지부 창립을 축. 하. 합. 니. 다!

경기지부가 이제서야 비로소 창립대회를 하는군요.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광스런 날에 참석을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드는군요. 저희 부산지부는 25-26 일 여름수련회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축하 메세지만 보냅니다.

앞으로 더더욱 큰 발전을 기대할게요.

지부건설에 애쓰신 경기지부회원님들 모두 화이팅!!

- 부산지부조직부장 안미경 -

영신언니.. 저 춘천의 호연이예요..

창립총회 멀리서나마 축하드려요.. 잘 성공리에 끝내시구요..

춘천은 언제 창립총회 한번 열랑가.. 히히..부럽네요..경기지부 파이팅!!

- 춘천에서 김호연 -

수도권 여름연수를 마치고

류지민 · 인천, 준회원

예측할 수 없는, 금방이라도 퍼부을 것 같은 장마철 날씨.

인천의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전철을 타고 이화여대로 향한 발걸음은 유난히도 바빴고, 설렜답니다.

왜? 한국 보육 교사회 수도권 여름연수가 있으니까요!

인천 연수 때도 그러하지만 수도권 연수를 가면, 날 알지는 못해도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동지감(?)에 난 너무도 좋은 걸요~

특히, 이번 연수가 기다려진 것은 보육교사회에서 인기 많은 문제현 선생님의 강의였기 때문이지요.

강의의 주제는 이야기 문화였어요.

"옛날 옛날에..." 하면서 구수하게 전해져 오는 느낌..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어릴 적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들었던 느낌...

그냥 편하게, 친구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듯이 말씀하시던 선생님을 보고 있으니 그 위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내 모습이 비춰지더군요.

내 직업이 그렇다보니 아이들하고 옛날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실이 끊기듯 이야기가 뚝! 끊어질 때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아이들 앞에서면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가슴 떨림이 그러했고, 이야기의 내용을 잊어버릴까 두려워 자기 호흡이 맞지 않았던 것이 그러했고, 아이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안겨다 줘야한다는 고정관념이 그러했나 봅니다.

한번은 '망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망태가 무언지 몰랐던 아이들에게 망태를 설명하는데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예구~

가장 미흡했던 것은 아이들과 함께 공감을 느끼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네들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여행 떠날 준비가 내겐 부족했으니까요. (자기반성!!!)

'이야기 할 때의 분위기(억양, 리듬, 표정), 애착관계,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호흡에 맞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라' 는 선생님의 말씀으로 강의는 끝이 났고, 아쉽게도 비가 와서 나들이 교육을 접은 채 모둠 수업으로 들어갔답니다.

인천 선생님들끼리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지요.

내일은 지민이가 이야기꾼이 되어 아이들과 이야기 보파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옛날 옛날에~" 하는 누룽지 같은 맛을 아이들과 나눠 보려구요..

아, 그전에 나들이부터 나가야겠지요?

2001년 시원한 얼음물 같은 추억 하나 만든 지민이었습니다...



왕초보의 어설픈 걸음마

윤현진 · 부산, 진구지회

현장에서 보육교사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넘는 올해 초, 부산지부 전통교육연구소모임 구성원 제의에 절반이상의 호기심으로 가벼이 'O.K'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계속되면서 현직에 없는 나에게는 실행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절감하면서도 한번 들여놓은 발을 쉽사리 뺄 수 없어서 재미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권 여름연수가 이루어지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죄금 적어 보려 합니다.

연습하면서

초기, 너무도 익숙하게 잠겨있는 목을 여는 일부러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턱을 당기고 목청껏 "아!"를 외쳐 보지만 어느 한순간, 배에 힘주는 것은 잊어버리고 목으로만 부르고 있는 내가 보였습니다.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기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욕심은 저만치 앞서 가 있고, 관련 자료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접하면서 모든 회원들이 생각하는 것이기도 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올바르게 제대로 키우는 길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직 혼란스러움이 많은 즈음, 8월 5일이라는 연수일이 정해지면서 '어찌 되겠지...'와 '어떻게 하지?' 사이를 왔다갔다 할 뿐 뚜렷한 방향은 없었기에 더욱 답답해왔습니다.

내가 강의를 듣는 입장일 때는 들은 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 되지만, 앞에 서는 입장이 되니 참여한 사람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꺼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기에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실력은 여~영 모자라기만 하니 이를 어쩔꼬!!

전래 노래를 녹음하면서

하지만 우리의 실력보다는 정확한 가사전달을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방송에서나 한번씩 본 녹음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신기함과 어떻게 진행될까하는 궁금증으로 녹음실이라는 곳에 들어서긴 했는데....

이어폰을 통해서 들리는 내 목소리는 들을수록 어색하기만 하고,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쏙쏙 스며들어 '다시! 다시!!'를 연거푸 반복하게 되면서 "연습 좀 제대로 할걸."하는 생각

들로 좁은 녹음실에서 모두가 서서히 지쳐만 가는데다 할수록 목은 잠기고 정말 장난이 아닌 상황이 되고 나니, '우리가 정말 큰 사고를 친 거구나' 싶더군요.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스러움에 이것을 어디에 내 놓을 수 있으며, 연수자료로 첨부된 tape을 들고 "이게 뭐야!"라는 말이나 듣지 않기를 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왕 초보강사 입성하는 날!

그렇게 시간은 지나 총 마무리 연습하던 날 저녁에는 속이 타긴 났던지 머리만 닿으면 5분 이내에 잠드는 이 사람이 밤새 뒤척이면서 「가사 외우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버벅거리며 실수하는 모습 등등」 별별 꿈을 다 꾸더니 아침에는 머리만 무겁게 되고 생각해보면 웃음뿐 이랍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면 하지 뭘!' 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무얼 할 수 있는고?'라는 반문들이 쏘였나 봅니다. 미리 잘 대비하지 이 사람아!!

연수 날 아침에는 태연한 듯 자료를 챙겨 보지만 좀체 눈에 들어오지는 않고 눈동자에도 불안감이 흰히 보이고, 아침부터의 다른 강좌도 듣는 등 마는 등 실제상황은 코앞인데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괜히 배도 좀 아픈 것 같고 온 몸이 불편하지만 해지고 정말 배짱 없는 모습이었습니디.

막상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진행하면서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몸을 움직이게 되는 전래놀이에서는 긴장도 풀리고 서로에게 친밀감을 주게되는 계기가 되어, 놀이가 있다는 게 참으로 고맙더라구요. 가만히 서서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얼어버렸을 텐데..

어찌되었건 '이제 끝났다!'라고 훌훌 털어 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돌아서자마자 '아차, 이제 빠졌네, 저것도 있었는데.. 이 말은 했어야 하는데..'하는 주님이 차오지만, 허허! 벌써 배는 떠났는걸 어찌하오리까.

아직은 어설픈 모습이지만 좀더 익숙해진 모습으로 나설 수 있는 날이 있으리라 믿으며, 저 개인의 바램이라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우리 전래노래, 놀이를 먼저 접할 수 있게 한 후 다른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조금의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위해 엄마, 아빠가 먼저 알아서 자연스럽게 익숙해 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태교 때부터의 적응? 어때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말로만 하지 맙시다!!

부산지부 전통교육연구소모임의 대장 최정임 선생님! 말 안 듣는 부원들 이끌며 마음 풀인 일들 넓은 가슴으로 포용해 주시고, 연수 때 한 팀으로 손발을 맞춰준 정현옥 선생님과 김지현 선생님, 이미애 선생님, 이정인 선생님, 임정숙 선생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알 해 보자구요!!!

여름연수와 우황청심원

유희원 · 광주전남, 도담도담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옛놀이와 노래’

2001년 한국보육교사회 전라권 여름 연수의 제목이다.

이번 연수가 작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회원들이 직접 준비했다는 것. 또 아이들과의 놀이 경험 이야기도 나누면서 좀 더 교사들에게 가깝게 다가서는 연수라는 점이다.

특히 두 번째 마당인 ‘전래노래와 놀이의 실제’ 부분은 전래동요연구소모임에서 직접 내용 선정부터 녹음작업까지 했다는 걸 들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회원들간의 친밀도도 높아지고 전래노래와 놀이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기간 내내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과 불안함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답답해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마지막 정리단계인 전래노래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들의 ‘끼’와 전래놀이의 속 깊은 맛을 알아 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몸집에 맞지 않는 걸걸한 소리와 ‘수박따기’의 할머니 역할의 대가라 할만큼 실감나게 ‘~ 꼬부랑쟁~ 널모래 담당’을 감칠맛 나게 녹음했던 윤미영 선생님, 가는 목소리와 느린 템포 때문에 노래만 부르면 트롯노래로 나와 웃음을 참게 만들었던 미란 선생님, 외모만큼 목소리는 작았어도 정확한 음을 잡아서 노래를 부르는 장은영 선생님, 전래동요연구소모임의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전래놀이에 관심이 많아 참가해서 넉넉한 ‘끼’를 보여준 박은경 선생님, 그리고 연구소모임장으로 무거운 몸과 가쁜 숨을 내쉬면서 끝까지 노래와 놀이를 함께 한 영금이 선생님까지 함께 한 녹음작업은 여름연수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함을 가시게 해주어 모듬별 진행을 무사히 치워 낼 수 있었다.

일정한 음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각자 자기의 개성 있는 목소리로 얼마든지 즐겁게 듣고 할 수 있는 우리 전래놀이의 좋은 점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호흡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성에 불안해하던 나에게 강의 시작 몇분 전! 김경아 선생님이 살며시 손을 쥐어주고 간 우황청심원 덕택에 떨지 않고 강의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이 자리를 빌어 광주 전남 보육교사회 회원들과 특히 김경아 교육부장께 고맙다는 맘을 전하고 싶다.

2001년 7월21일.

내 개인사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이 날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낮설지만 따뜻한 만남

- 어깨동무어린이집의 정선진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살면서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근 7-8년 전 어린이집 교사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난 장애아는 2명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유사자폐라는 진단을 받았었던 다섯 살 먹은 남자아이였는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직접 나서서 일을 더 키우는 통에 우리를 난감하게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어린 나이부터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 열심이었는데 그 덕분에 지 초등학교에 진학해서 큰 문제없이 다니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그때 8살이나 9살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여자아이였지요. 몸집은 그 나이에 걸맞게 큼직했는데 정신연령은 두 세 살 정도 인 것 같았습니다. 9살의 키와 힘으로 두 살 아이들이 저지르는 일을 해대는 통에 그때 선생님들은 온통 정신없는 일상을 보냈었습니다. 결국 한해 이상을 그 아이와 함께 생활했지만 그때의 교사 수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 아이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몹시도 아팠지만 결국은 그렇게 했어야 했었습니다.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두 아이를 생각하면 여전히 교사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는 자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인물탐방기를 쓸 인물을 낙점 해야하는 시점에서 저는 어깨동무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는 정선진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을 만나 뵙는다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마구 떠오르더군요.

서울지부 2년차 회원이지만 제가 활동을 접은 이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도 얼굴을 직접 볼 기회가 없어 이름과 전화번호만 가지고 정선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남이었기에 잠깐의 어색함이 흐른 뒤 선생님 개인적 신상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정선진 선생님은 28살, 미혼, 6녀 중 차녀이며 해화동 옥탑방에서 혼자 살고있다고 합니다. 직장도 너무 멀지 않느냐는 질문에 방이 너무 좋아서 지금 4년째 살고 있는데 꼭대기에 있어서 걸어가기에 너무 힘들지만 올라가면 너무 좋다고.. 직장을 옮기는 한이 있어도 방을 옮기고 싶지 않다고... 방 자랑을 하셨습니다. 해화동 옥탑방.. 생각만 해도 근사한 시 한 구절이 떠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방으로 초대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두 번 제 질문을 했습니다.

☞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는지?

성대 아동학과를 다녔는데요, 대학교 때 관련과목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있어서 개론이랑 임상심리 문제행동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쪽을 세 네 과목 이수했어요. 졸업 후에 조기교실에서 2년 반정도 근무했고, 이곳 어깨동무에서 2년 됐어요.

☞ 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보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분통합과 완전통합이 있는데요, 만약 부분적으로 통합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면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통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곳은 견학을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떤 곳은 수업시간은 빼고 간식시간 같은 때만 통합을 하는데도 있고..

어깨동무에서는 작년에 6개월 정도는 부분통합을 했었어요. 아이들의 정도가 심했고 제가 개별적 도움을 주어야할 것 같더라구요. 아이들이 언어적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자폐아동이나 정신지체아동인 경우에 다른 활동적인 면보다는 언어적 면이 떨어져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통합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알아들지도 못할 뿐더러 그 아이에게는 고문과도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야기나누기 시간이나 동화 같은 것도 수준이 높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따로 분리해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했어요. 분리교육을 반년 했었고 그 아이도 어느 정도는 통합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었고 새로 받은 두 아이도 통합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적어도 착색은 되는 아이들이죠. 착색이 되고 활동할 때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걸 소화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 완전통합을 하게 됐어요.

부분통합이나 완전통합이나에서 교사가 잘 판단을 해야해요. 부분적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미술영역이나 노래나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어요. 도와주지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④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 같으세요?

애들에 따라 달라요. 작년에는 애들이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통합의 목적이 학습적 자극이나 인지적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에 더 많은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일반교사도 특수교사도 아이들도 다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완전통합만을 고집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에게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었어요. 부분적으로 하면서 아이들 언어도 더 나아졌고 집중력도 향상됐고 교사와 관계도 더 밀접해지고...

그러니까 교사가 계획을 세울 때 한두 달 부분통합을 하면서 차츰 완전통합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정답이다 말씀 못 드려요.

④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때 통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장애통합보육에서 교육의 목적은 전인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통합교육이 아주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것만큼 효과적인게 없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을 내가 받아 귀야하고, 저 사람 나랑 다르지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는 거고, 그게 사회야." 그걸 자연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안 생기고 얼굴이 까맣거나 하얗더라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보면 무섭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막 이려고 있고(머리를 막 흔들다) 그러면 무섭죠. 무서웠을 텐데 차차 함께 지내면서 "재는 저런 특성이 있구나..." 하고 느끼죠.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연스러워요. 장애아동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서 옆에 앉으려고 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어머니들이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그거에 따른 건데, 저희어린이집의 지역적 특성인지 어머니들은 학습적 부분에 대한 욕구가 크세요.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많으세요.

④ 장애통합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은 어떻게 짜이신지?

비장애아동에 맞추어 짜여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 수준이 차이가 많아서 장애아동의 목표를 따로 정했어요. 수업계획안을 제가 일일이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장애아동이 갖는 목표가 뭔지를 잡아서 그 수업에 참여했었어요.

미술활동을 할 때 비장애 아동들이 작품을 만들면 장애아동들은 가위질을 하거나 오려서 붙이는 정도의 난이도로. 장애아동들은 창의적인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생각해서 그려봐." 이런 게 안 돼요. 교사가 "뭘 그려봐." 하고 지시했을 때 그걸 따라 그린다가 목표가 되는 거죠.

④ 장애통합보육을 하면서 특수교사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상적인 장애통합보육이 되려면 특수교사나 일반교사의 구분이 없이 서로가 서로의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건 장애통합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의 교사 모두가 특수교육과 장애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분리를 가져오죠.

또 한가지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은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장애아동이 문제행동을 보일 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장애아가 자해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저는 상황에 따라 무시하거나 만일 장애아가 자신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있으면 아이의 손을 잡아 더 세게 한번 때리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다른 교사들이나 일반아동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보죠. 나의 목적은 이 아이들을 지금 당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지요. 상황이 끝난 뒤 같은 반의 비장애아동들에게 선생님이 왜 그 친구에게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죠.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물어보면 아이들은 그 상황을 이미 다 알아요.

④ 통합보육일성화를 위해 이것만은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정책제안이라고 할까요?

교사재교육이 꼭 필요해요. 일반교사들에게는 특수교육에 대한 개괄적 교육이 필요하고, 특수교사들에게는 전문적 부분에서 치료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전문화된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어깨동무어린이집 교사들은 돌아가며 특수교육과정이나 연수를 받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최소한의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해요. 적어도 개별실 하나는 있어야 해요.

그리고 통합보육에 대한 실질적 자료들이 너무 없어요. 장애아통합보육을 시작하기 전에 물리적 환경과 부모교육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해요.

④ 제일 마음에 남는 아이가 있다면?

예, 가장 정이 가는 아이요. 자폐구요. 처음 왔을 때 내 입술 옆을 물었어요. 한동안 그 상처를 가지고 다녔죠. 처음엔 자리에 앉질 않았어요. 줄이나 수건 그런 걸 매일 흔들고 다니고, 지금은 흔들고 다니지는 않는데 눈치를 보면서 손장난을 해요. 많이 좋아졌는데 정제되어 있어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주의집중이 잘 안 돼요. 제일 걱정되는 아이죠.

④ 보육교사로서 좌우명이 있다면? 좌우명이 아니라도 아이들을 대하면서 항상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랄지?

아이들은 나를 스쳐 가는 것이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싶다고 항상 생각하죠.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정선진 선생님은 매우 열정적인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으로서 바라는 점이나 뭐 그런 걸 말해주라는 질문엔 매우 난처해하시더군요. 회원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점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던 점이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초면에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려운 점을 기탄 없이 말씀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통합에 관한 질문만 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앞으로 계속 만나야 할 관계임으로 또 다른 장에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책의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애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을되세요..

도루는 좀처럼 교실에 들어오지 않는다. 혼자 행동할 때가 많고 '나, 안 해.'를 되풀이하며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면 '푸'하고 침을 뱉는다. 교실에서 오줌을 싼 적도 있고, 나팔꽃을 모종삽으로 내리친 적도 있었다.

모팡은 동적이 약간 굼뜨며 안전하다. 항상 혼자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데, 몸집이 작고 힘도 딸린다. 또 자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입안에서 우물거리듯이 말한다.

이 글을 쓰다 보니 불현듯 누군가에게 따지고 싶어진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틀린 점이 무엇이나고, 당장 나만해도 어린 시절 이 두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던가? 만약 도루와 모팡이 어른들 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단지 남들과 좀 다르다고 해서 '장애'라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고 항의할지도 모르겠다.

하이타니겐지로 [아이들에게 배운다]중에서 -

어린이와

건강

육아상담 Q&A

편집부

아래의 글을
홍은소아과(<http://gfph.co.kr>)와
본회 홈페이지 육아상담실에서
펴온 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쓰게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독감예방접종은 언제쯤이 좋은가요? 2) 예방접종 후 며칠 뒤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3) 독감예방접종은 꼭 해야 하나요? 의 내용입니다. 답글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홍은소아과 김우성입니다.

1) 독감 예방접종은

대상연령: 만6개월 이상

접종방법: 첫째는

만 6개월~ 만 35개월: 4주 간격으로
0.25CC 2회

만 3세~ 만 8세: 0.5ml 2회,

만 9세 이상: 0.5ml 1회

첫해 두 번 접종한 아이는 다음해부터는 매년 1회 접종합니다. 근육 주사로 맞습니다.

2) 독감은 접종한 후에 2주 후부터 항체가 생기며 한달 뒤에 최고치에 달하며 5개월 정도 효과가 갑니다. 9월부터 아이들을 접종하면 한달 후에 2차 접종하고 3월말까지 효과가 지속되니 9월부터가 독감 접종할 시기입니다. 독감은 12월부터 2월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3) 독감접종은 만 6개월이 지난 아가라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명심하실 것은 독감 예방 접종한다고 감기 적게 걸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감 접종한다고 감기가 덜 걸리지도 않고 약하게 걸리지도 않습니다.

독감과 감기는 전혀 다른 병입니다. 독감접종을 하면 감기가 아니고 독감만 60-90%정도 예방됩니다. 이 60-90%라는 의미는 독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독감이 둘 때 도는 종류 중에 접종약과 같은 종류의 독감이 둘 때 예방이 되는 데 도는 독감과 접종하는 독감약이 같을 확률이 60-90% 란 이야기입니다. 독감은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변갈아가면서 돕니다. 1년 중에도 여러 종류가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저의 언니 집에 20개월하고 8개월 된 남자 조카가 있는데요. 형인 20개월 된 조카가 비디오를 하루에 6-8시간씩 보거든요. 언니는 아이가 둘 다 어리니까 처음에는 큰애를 조금이나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비디오를 보여줬었는데 이젠 비디오를 안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 비디오를 볼 때 형이 새로 태어난 동생을 너무 괴롭히니까 조금씩 보여줬던 건데 이젠 제가 보기도 조금 심각하거든요. (비디오 볼 때는 너무 집중을 하니까 불려도 대답도 안하고 우유도 안 먹어요) 그리고 얼마 전 tv에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비디오 중독중에 걸린 예가 많고 아이한테도 안 좋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홍은소아과 유영이입니다.

너무 어린 아기들 특히 두 돌 이전에는 TV나 비디오 시청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성을 익히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비디오가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시청시간은 1-

2시간 이내로 제한해주시고 어른들이 자꾸 흥미를 끌도록 놀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만났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놀이방에 동원하는 3세 여자아이의 식사지도에 고충이 있어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이 아이는 식사시간에 혼자서 밥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식욕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 손수 직접 떠 먹여 주며 달래보기도 했지만 차츰 겪어보니 식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먹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즉 누군가가 떠 먹여 줘야만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이 아이가 식사 중에 자신의 얼굴이나 손에 음식물이 묻는 것, 또 옷이나 바닥에 음식물이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 손가락질을 기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식사 중에 음식물로 자신의 몸이나 주변이 더러워지면 자지러 질듯 울곤 합니다.

워낙에 겁이 많아 혼자서 미끄럼틀을 타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 하지도 않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의 식사지도, 원내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한국보육교사회입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식사시간은 아이들에게나 교사에게 매우 중요하면서 힘든 시간이지요. 다양한 식습관과 취향을 가진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일

입니다.

말씀하신 유아의 경우 먼저 가정에서의 식사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모님과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어린이집에서는 3세면 혼자 스스로 밥도 먹고 옷도 정리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지만 가정에서는 아기취급을 하면서 어른들이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가 혼자서 먹어 본 경험이 별로 없다면 손가락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집에서 어른들이 밥을 떠 먹여주는지, 지저분한 것에 대해 어른들이 아이가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치우고 항상 깨끗한 것을 강조하는지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가정에서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생활습관은 가정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밥을 전부 혼자서 먹게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한두 손가락 정도라도 스스로 먹도록 격려하고 혼자서 한 손가락이라도 먹으면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질이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으니 자유놀이활동시간에 사발(우묵한 큰 그릇)에 콩이나 마카로니 같은 것을 담아 손가락으로 다른 그릇에 옮기는 놀이활동을 자주 하도록 해주세요.

또 음식물이 아이가 먹기 쉽게 작게 잘라졌는지 확인하고 뜨기 좋은 크기로 음식물을 잘라주세요.

평소에 찰흙놀이나 핑거페인팅 등으로 손에 무엇이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

양한 경험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 거울을 바닥에 놓고 면도크림이나 무스를 짜서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놀이도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어 좋은 놀이입니다.

옷에 더러운 것이 묻는 것에 유난히 예민하다면 부모님께 부탁해서 앞치마나 가운을 준비해서 식사 전에 입혀주시고 "이제 옷에는 안 묻을 거야. 그리고 음식이 떨어지면 휴지로 닦으면 돼." 하고 이야기 해주세요.

무엇보다 변화는 서서히 온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몇 달 동안 꾸준히 지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오겠지요? 가정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도록 요청하시구요.

혼자 먹다가 흘리더라도 칭찬해주고 흘린 것보다 혼자 먹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하세요.

아이를 돌본다는 건 참 많이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왜 혼자서 먹지 않는지 원인을 잘 살펴서 하나씩 바꿔 가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편집부

아래의 글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에서 퍼온 글입니다.

(1) 놀이감

놀이감 선택시 고려할 점

- 셀룰로이드나 가연성 재료로 만든 놀이감은 금해야 한다.
- 자동차 등 금속성 놀이감은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 플라스틱 장난감은 깨어지지 않는 재료로 만든 것을 선택해야 한다.
- 장난감 재료는 해로운 염료나 페인트 등 납이 허용치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전동 장난감은 모터의 전압이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장난감의 움직이는 구조의 부분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태엽을 감을 때 너무 많이 감다가 튕겨서 사고가 나기도 하므로 주의한다.
- 탈 수 있을 만큼 큰 놀이감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안정감이 있는 것으로 골라야 하며 튼튼하고 끝이 무딘 것이 좋다.
- 나사나 못이 많은 놀이감은 못이나 나사에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놀이감 관리시 주의할 점

- 비닐포장지는 질식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 놀이감에 위험한 부품이 있는지 조사하여 제거한다.
- 목재 놀이감은 거친 가장자리와 표면의 가시를 사포로 매끄럽게 한다.
- 놀이감을 수리할 때 안전장치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고장난 부품을 대체할 때는 규격에 맞지 않은 유사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놀이감이나 놀이감 상자에 다시 페인트칠을 해야 할 때는 쓰다 남은 오래된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 실외 놀이를 위한 놀이감은 녹이 생기므로 비를 맞히지 않도록 한다.

(2) 블록놀이

- 블록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크기와 높이의 정리장에 정돈해야 한다.
- 아래 부분에 무겁고 큰 블록을, 위 부분에는 가볍고 작은 블록을 정리해야 한다.
- 블록은 끝 부분이 날카롭거나 끼우기에 딱딱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 어린이가 블록으로 친구를 때리거나 던지지 않아야 한다.
- 어린이가 총, 칼 등을 만들어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부서진 블록은 그때그때 치워주어야 한다.
- 어린이가 작은 블록을 입 속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미술놀이

- 어린이가 사용하는 미술재료는 먹거나 마시거나 피부에 닿아도 해롭지 않은 것으로 선택 해야 한다.
- 미술놀이를 할 경우에는 쉽게 바닥을 닦을 수 있는 비닐이나 종이를 깔되 물기가 생기면 즉시 닦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종이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베이면 물로 깨끗이 씻도록 한다.
- 색종이, 유점토 등의 색소는 유해할 수 있으므로 입에 대지 않아야 한다.
- 가위는 끝이 무디며 가볍고 안전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 어린이가 연필, 크레용, 붓 등을 입안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위, 스테플러, 펀치 등의 도구에 대한 안전한 사용법을 알려주고 사용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어린이에게 점착제, 특히 본드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4) 소꿉놀이

- 선반이나 옷장, 싱크대는 안전한 재질로 제작되고 유아의 신체크기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 야 한다.
- 장난감의 상태를 점검하며 고장나거나 망가진 것은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어야 한다.
- 유리 등 위험한 재질의 용품은 내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소꿉놀이감 중 모형음식이나 모형그릇은 입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어린이가 젓가락을 귀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병원놀이를 할 때 눈, 코, 입, 귀 등에 물건을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과학놀이

- 어린이에게 여러 가지 탐색도구(거울, 자석, 프리즘, 확대경, 현미경, 청진기, 스포이트 등)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 측정도구(자, 거울, 시계 등)를 위험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실내에서 기르는 동물, 곤충, 식물류를 함부로 만지지 않아야 한다.
- 컴퓨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스위치를 별도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

(6) 놀이터

- 기구에 올라가거나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때 다른 사람을 밀지 않아야 한다.
-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 싸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흙이나 물건을 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순서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 제치지 않아야 한다.
- 동물과 함께 또는 손에 물건을 들거나 가방을 메고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자전거나 롤러 스케이트 등을 타고 놀이기구에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
- 여름철에 놀이기구가 뜨거워졌거나 겨울철에 얼었을 때는 이용하지 않는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반편견, 다문화 교육

조인숙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장

반편견 다문화 교육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다문화 정책이 변화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달라졌다. 초기의 단순한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려 함에서 종교, 성별, 사회경제적 계급, 연령, 능력, 가족생활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 즉 다문화 교육은 모든 '다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름'에 대한 이해, 긍정적인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여 다문화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을 가르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반편견 교육이란 첫째, 개인의 능력, 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 아동의 정체성과 자발적 태도 구성, 고정관념, 편견, 차별적 행동에 대한 방지 등으로 종래의 다문화교육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종래의 다문화 교육인 관용적 교육과정과 차별을 두기 위해 최근에는 반편견 다문화교육 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반편견 다문화 교육은 왜 필요한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로 이어지고 다양성을 지닌 하나의 무대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세계화를 가속화하여 이제 지구촌은 여러 인종과 문화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거대한 공동체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문화나 인종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잠재적 능력을 지닌 미래의 사회인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화라는 거센 바람을 맞이하여 다양한 다문화 사회에서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반편견 다문화교육은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유아기에 가정이나 시설에서 문화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배워나가며 그것을 토대로 정체

성을 세워나가기 때문이다. 4.5세 경이 되면 이미 주변환경으로부터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게 되고 그대로 내면화 하는 특성을 보인다. 유치원에 다니는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송숙진(1999)연구에서 피부와 머리색에 의해 인종을 인식하였고 인종에 대한 선호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기에 이미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장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그러나 여러 연구결과(이정희, 1999; 강소원, 2000; 김지현, 2000; 권현수, 2000; 최연자, 2001) 성인의 도움을 받으면 고정관념과 편견을 덜 갖게 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의 다양함(성, 계층, 장애, 지역, 종교)을 편견 없이 수용하는 태도와 기초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다문화 교육은 1960년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시민권 운동에서부터 출발하였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계 미국인은 자신들에 대해 상당한 우월감을 지니고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폈다. 미국에 거주하는 다른 인종, 민족들이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미국의 문화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한 것이다. 많은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에게 벌을 주었고 따라서 부모들은 집에서 오직 영어로만 말을 해야 했다. 하지만 여러 인종이 살아가는 나라에서 이러한 조치는 당장은 백인들에게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인 백인 아동에게 당장은 압박감을 주지 않을 지라도 그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가야 할 사회는 결국 유색인종이 더 많은 다양한 사회이고 그곳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미국은 다양한 집단을 미국이라는 '도가니' 속에 융해하여 보통의 미국인으로 다시 만들고자 하였다. 인종을 초월하여 "우리는 모두 미국인으로 어떠한 문화라도 공유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은 다른 인종은 그들의 문화를 버리도록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1960년대, 지금까지의 이러한 문화적 억압 교육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면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려는 희망에서 다문화주의가 교실환경과 교육과정에 첨가된다. 이때 다문화 교육은 기존 교육과정에 특별 행사나 일정 기간에 몇 주 동안 소개하는 형식으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소위 관광적 교육과정(tourist curriculum)으로 인종에 대한 불공평을 해소하지는 못하였으며 아이들이 다른 인종에 대한 존중감이나 정체감을 건강하게 발달시키는 데에는 부족하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미국교육에 이중언어

(bilingual)/이중문화(biculture) 정책이 시행된다. 즉, 자신의 언어, 문화와 미국의 언어, 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게 한 것이다. 미국의 문화적 규범과 행동, 언어를 배우는 반면 자신들의 모국어를 배우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명 심포니 이론(Symphony theory)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악기가 제소리를 충분히 내면서 웅장하고 조화로운 오케스트라 음악을 만들어내 듯 미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적 불안과 분열을 가져 올 거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000년 현재 미국국민의 2/3가 유색인종이며 미국 학교의 다수가 소수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현실은 미국의 학교 교육과정에 재구성을 절실히 요구하였으며 단순히 인종에 대한 비차별뿐 아니라 성, 장애, 능력, 사회계층 등 인간 사회 문화와 결부된 여러 속성들에 대한 반편견으로 확대되었다. 유럽계 미국인이 아닌 경우 이중문화와 이중언어 능력을 길러주어 사회 전반에 걸쳐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하는 반면 유럽계 미국인의 경우는 자신의 문화는 유지하도록 격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반편견 다문화 교육이 요구된 것이다.

1990년 이후 세계는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더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뿐만 아니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도 반편견 다문화교육의 움직임이 활발하며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화를 대비하는 교육의 실천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편견 다문화 교육, 어떻게 해야하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서 반편견 다문화 교육이 강조된 데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구성되어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한 것이며 더욱 다양해지는 미국 사회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인 것으로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대로 단일민족국가라는 자부심이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세계화라는 지구촌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다문화 교육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세계화는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무대가 넓어지며, 단지 다른 여러 민족, 국가와 함께 어울리고 융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사회 속에서 우리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들과 공동으로 인류의 역사를 세워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경우는 첫째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우리의 문화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요구된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다문화 교육의 출발은 우리 문화

의 내면화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보다는 다양한 문화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능력을 기른다.

아동은 진정한 문화의 개념을 인식하지는 못한다. 유아들은 지리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국가, 도시간의 관계를 개념화 할 수는 없다(Piaget, 1951). 비록 유아들이 언어, 의상, 음식과 같은 문화적 실재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유아들은 이것들의 차이가 인종이나 국가의 차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 개념에 대한 교육보다는 다양함을 이해하고 편견을 갖지 않는 태도를 갖도록 함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태도와 같은 타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에서부터 협동, 도와주기, 문제해결력 등 공동체 교육, 평등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반편견 다문화 교육은 실생활을 중심으로 연중 계획되어야 한다.

우리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은 소위 관광교육과정이라 일컫는 것으로 음식, 전통의상, 가정용품과 같은 문화유물이나 축하행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하는 형태이다. 이는 '다양함'에 대한 이해, 편견 없는 태도, 공동체 의식 함양은 촉진하지 못하고 단순히 물질적인 문명을 기억하게 할뿐이다.

우리에게 다문화 교육은 외국 문화를 공유하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한 것이라면 학교 교육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우리의 다문화 교육은 사회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여성이나 장애인, 가난한 자, 유색인종 등)에 대해 유아들이 긍정적인 개념과 태도를 갖도록 하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다양한 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실생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 교사와 부모의 언행, 비디오, 놀이 등 아이의 생활 속에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요소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자.

세계의 보육현장

서울촌놈 오사카 가다 2

이경녀 · 본회 사무국장

아, 그때 미리 다 써둘 걸.....

오사카 다녀온 지 벌써 두 달. 젊어서 읍주가무를 너무 즐겨서인지(?) 기억력이 쇠퇴한 요즘 두 달 전 가물거리는 기억을 애써 끄집어내려니 힘이 든다.

우리네 아이들 만들 때마다 다른 사람이 원고 좀 늦을라치면 독달같이 전화해서 독촉하는 나이지만, 나도 사람 인지라 매번 마감 막바지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원고를 쓰곤 한다.

그런데 지금은 두 달 전 얘기를 쓰려니 컴퓨터 자판이 보기도 싫다.

그래도 할 건 해야겠기에....

오사카에서의 이튿날.

지난 밤 익숙하지 않은 호텔 침대와 사용방법을 잘 몰라 무턱대고 모든 스위치를 다 눌러버린 바람에 에어컨이 꺼져(여기는 창문도 뿔 밖에 안 열린다.) 땀 범벅이 되어서 밤새 뒤척뒤척 거렸다. 내가 보기보다는 좀 예민한 편이라....

당연히 아침 일찍 눈이 떠질 수밖에. 아침으로 토스트와 삶은 달걀, 양상

치 샐러드, 커피가 나왔다. 전 날 먹은 술 땀에- 절대 과음은 아니었음- 뜨끈한 국물로 속을 풀고 싶었으나 그저 웨이터보고 "워터 모어(water more)"만 외칠 따름이다. 그래도 돈이 아까워 다 먹었다.

오전 9시 30분.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애신보육소 빼고) 세화보육소부터 방문하기로 했다. 이 날도 통역을 위해 '희망의 문 보육소'의 김혜영 선생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셨다.

우리는 열심히 걸었다. 길을 가다 보니 걸어가는 사람은 우리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한 집에 식구 수대로 자전거가 있다하니 자전거 보급률이 상상이 간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운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보 이상 안 걷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여기서도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거리라도 자전거로 간다. 그래서인지 별로 뚱뚱한 사람이 없다. 아니면 도쿄가 아니라서 그런가?

어제 지났던 코리아타운을 지나 골목으로 꼬불꼬불, 한 20분을 걸어가는 내내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한다. 나에

게? 아니지~ 알고 보니 김혜영 선생님이 전에는 세화 보육소의 원장을 오래 했었다.

세화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마당에서 아침부터 놀고 있다. 남자 보육사도 보인다. 으, 부럽다.

우리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 모리모토 원장님과 정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정선생님은 재일교포 3세란다. 세화에서 나누는 얘기들을 통역해 주셨다. 자그맣고 예쁜 여성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토지마 이사장이 오시고 한00라는 남자 보육사도 왔다. 유부남이라 이름은 잘 기억 안 난다.

세화보육소를 정리하자면 크게 장애 통합보육, 특수보육, 혼합보육-여기서 잠깐 혼합보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에서도 90년대 중반에 혼합보육이 좋은지 분반이 좋은지 참 많은 얘기들이 오갔으셨습니다. 일본의 혼합보육은 0세부터 5세까지, 만 나이입니다. 최악 한 반에 모아놓고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0세반, 1~2세반, 3~5세반으로 나눠 비슷한 연령들이 함께 생활하고 필요시에 분반하는 활동입니다. 한국에서는 분반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시에 혼합을 하는 것이 좀 다르지요. 그리고 학동보육(방과후보육), 민족보육을 하고 있는 곳이다. 앞



의 보육 유형은 이후 우리가 돌아본 시설 모두 다 하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특이한 보육형태가 아니지만 여기는 보육소에 다니는 아이들이 90%가 재일교

포라서 특히 민족교육에 신경을 쓴다. 예전 우리 회원이었던 변미양 선생님께서 아이들 가락이와 가람이도 여기에서 만났다. 그리고 교포 선생님들도 대여섯 분 있단다.

민족보육내용은 주로 한국어 인사, 노래를 배우고 연 1회 민족보육 주간을 정해 보육사들이 부채춤, 풍물놀이, 옛이야기 연극 등을 진행한다. 5세 반 아이들은 지역 주민 결혼식에서 풍물 공연을 하기도 했다하니 나보다 실력이 낫다 싶었다.

보육소에 다니는 나머지 10%의 일본인 가정에서는 민족보육에 대해 불만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20년이나 실시해오고 있기에 이제는 세화의 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 민족보육을 처음 실시했을 때 오히려 재일동포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앞으로 계속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왜 다른 교육을 하느냐고, 일본인과 똑같은 교육을 시켜달라고. 한편에선 그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재일동포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우

리 나라를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했다. 요즘은 외국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나라의 인사말 등을 가르친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란단다.

민족보육을 하기 위해 연 1~2회 정도로 교사들이 공부를 한다.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오히려 내면적인 부분을 힘들어하는 교사가 있다 한다.

20여년 전 한국아이들이 보육소를 다니다 아이들이 한국말을 모른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인사말과 '산토끼' 노래를 재일동포 어머니들에게 배워서 가르치기 시작했단다. 70년대 일본은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반차별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일본 아이든 재일교포 아이든 '함께 한국 노래를 배웠다'는 기억을 갖고 성인으로 자라났을 경우 일본 사회에서 차별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으로 민족보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마도 내 생각에 장애통합보육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철학에서 시작되었으리라 싶다.

아무튼 세화사회복지법인의 철학은 "함께 한다",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한다.

참고로 일본의 국공립보육소는 모두 사회복지법인이다.

우리 회가 보육교사회이다 보니 보육사의 근무조건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마침 옆에 남자보육사가 앉아 있길래 몇 가지를 물어 봤다. 세화를 둘러보니 남자보육사들이 제법 눈에 띄었다. 결혼한 남자보육사도 있냐고 하니 두 명 정도 있단다. 가정을 꾸려 가는데 어려움이 없느냐고 물으니 가족수당도 나오고 아내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단다. 일본은 2년제로 보육사과정을 졸업하고 보육소에 취직하면 보편적으로 그 학력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물론 국공립 수준이다. 그리고 남녀 월급의 차이는 없다. 다만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자보육사인 경우도 한부모 가정이면 가족수당이 나온다고 한다. 우리 나라 국공립과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남자보육사들의 경력은 짧은 편이다. 아무래도 여자와 일하고 여성 상 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해 줬다. 참, 세상의 남자들이란 다 비슷하다. 사랑만 국경을 넘는 건 아닌가 보다. 이젠 우리끼리 얘기니까 일본사람한테는 비밀이에요. ~~~

일본에서 보육사들은 8시간 근무가 보장되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종사자들도 꽤 있다고 한다. 아동 수가 약 120명인데 이 시설에서 종사자는 43명이다. 43명 모두가 보육사는 아니겠지만 한 보육사가 10시간을, 12시간을 아이들을 보육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이야기를 마치고 내려오니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목욕을 하고 있다. 씻고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는 모양이다. 마당은 보육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아이들이 바깥활동을 위해 드나들기 쉽게 해 놓았다. 그리고 세면대도 길게 놓여 있어 언제든지 물과 휴지로 별별걸 다 만들 수 있겠다 싶었다. 발가벗고 서 있는 아이들이 마냥 부럽기만 했다.

두 번째는 성애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성애원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작은 기차 같은 것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리고 한 참 걸었다. 얼마 전에 새로 지어서 그런지 엘리베이터도 있고 모

든 것이 새것이다. 그리고 한 쪽에는 작은 예배실이 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이 적다고 하는데 우리가 돌아본 시설들은 모두 기독교정신을 가진 시설들이었다. 도착하니 점심시간이다. 둥그런 식판에 담긴 반찬 두 가지와 어묵 된장국. 밥이 오늘의 식단이다. 튀겨낸 만두에 단맛 나는 짭쭇한 소스가 얹혀져 있고, 다른 반찬은 삶은 흰콩과 다시마 채 썬 것에 역시 단맛 나는 짭쭇한 소스로 버무려져 있다. 최열전 하지만 국이다 싶어 뜨끈한 된장국을 두 공기 마셨다. 절대 사발이 아니다. 만두는 그러저럭 먹었으나 삶은 콩은 -난 콩요리는 다 좋아하는 편이지만 도저히 이것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가 보기보다 좀 예민한 편이라서... 난 외국에 가서 살면 좀 살이 빠지지 않을까 싶다 ~~~

성애원 역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소로 장애통합보육 등등을 하고 있다.

다소 행동이 과장되고 활기찬 약간의 공주증세가 있어 보이는(왜냐면 얼굴은 나이 들어 보이는데 굵은 웨이트민 머리에 하얀 레이스 달린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이 조금 화사해요. 그치만 미인이예요. 제가 본 일본 여성 중 가장) 노지마 원장님과 통역을 담당하신 리연미 선생님(조총련 쪽에서 교육을 받으셨대요, 북한도 몇 번 다녀오고, 미리 알았더라면 북한 얘기도 듣고 이야기도 나눠 보고 싶었는데 그 땐 몰랐어요. 지금은 성애원에서 학동보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다모토 대표, 그리고 우리를 마중 나오셨던 쿠사바(아동관 부관장 - 아동관은 일종의 아동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애원은 새로 건물을 지은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방문한 시설 중에 가장 깔끔하고 엘리베이터도 있었다. 1층의 한 방에 가니 방



한 가운데에 아이들 키에 맞는 세면장이 있었다. 좀 이상해 하니 부모들이 방안에다 수도를 놓고 아이들이 맘껏 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설치했다고 설명해 준다. 보육실이 난장판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랬지만 점차 아이들은 수도 주변에서 놀 줄 알게 되었으며 이제는 질릴 만큼 물놀이를 하고 욕구가 충족되어 다른 활동에도 집중을 잘 한다고 한다.

이 보육소를 지으면서 부모들과 시설구조 등에 대해 의논을 하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했는데 방안의 수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

또한 20년 전부터 장애통합보육을 하고 있다. 어느 날 보육소에 장애아동이 오게 되면서 통합보육을 하게 되었다. "하나의 생명은 똑같다."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 있을 뿐이다." "다름이 있는 아이와 함께 관계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장애통합보육을 하고 있다.

같은 것은 하기가 쉽지만 다르다면 소외되기 쉽다. 통합보육을 하게 되면 각각이 존중받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다른 애들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해결하는

방법 역시 함께 배운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특수교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별도로 특수 교사를 두고 있지 않으며 부모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한다. "장애는 장애로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집단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철학인 듯 하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훈련시켜 일반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는 고치기 못하니까 장애라고 생각한단다. 훈련을 받게 하고 싶은 부모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훈련이 소외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훈련을 통해 주류에 그들을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 그 자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회환경과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일본 내에서도 몇몇 시설들은 - 예를 들어 규칙을 강조하는 - 장애아동 보육을 싫어한다고 하니 말이다.

성애원에는 현재는 11명의 정신, 신체지체가아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중증 아동은 교사와 아동 비율이 1:1이고 경증은 1:3으로 인건비는 오사카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것이 힘들지 않는다는 질문에 오히려 덕을 보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대답한다. 아이들은 장애아동을 보며 열등감을 회복하기도 하고- 장애아동과 비교해서라기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자극을 받는다고- 교사들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나는 잠깐동안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니 그들 말대로 '장애인이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 이구나 싶다. 장애에 대해 시각을 바꾸면 그들의 존재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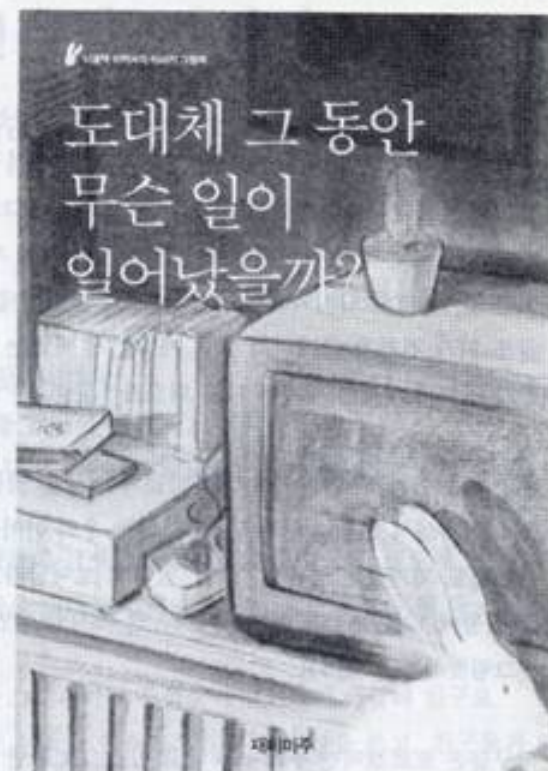
이 외에 일본의 방과후 보육이나 연장, 일시 보육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소개하려고 한다. 처음에 이 글을 쓸 때는 너무도 하기 싫어 몸을 배배 틀었는데 막상 써 내려가다 보니 난 역시 말이 많구나 싶다.



좋은 그림책 소개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진실 · 인천, 샘터어린이집



가끔 서점에 가면 예전에 비해 그림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 무엇을 보아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출판사에서 앞다투어 아이들 책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재와 표현기법, 아직은 번역된 외국작품이 많은 책 속에서, 수준 있는 국내 창작 그림책을 만나는 일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제목에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 책을 만난 것도 그렇습니다.

식구들이 집을 비운 사이 그 집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번 보시겠어요.

혼자 남아 집을 보고 있던 토끼가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배가 고파 냉장고 문을 열고 밥을 먹고, 쪽진한 쇼파에서 과자를 먹으며 비디오를 보고, 아주머니 화장대에 올라가 화장을 하고, 옷장 속에서 막내 한복을 꺼내 입고, 아저씨 방에선 책을 꺼내 봅니다. 그래도 토끼는 아이들 방에서 제일 신나게 놀니다. 장난감으로 자석낚시, 블럭로봇을 만듭니다. 급기야 벽장 속에서 물리블레이드를 신고 달리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

롭니다. 많이 놀아 피곤한 토끼는 졸립대요. 침대에서 자고 다음날 깨어 베란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안 구석구석 토끼똥을 증거로(?) 남겨놓은 일 말고는요.

이 그림책은 작가가 실제 집에서 기른 '빨빨이' 라는 토끼와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끼와 집안 구석구석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밀그림이 들여다보이게끔 열게 칠한 수채화풍의 그림이 정겹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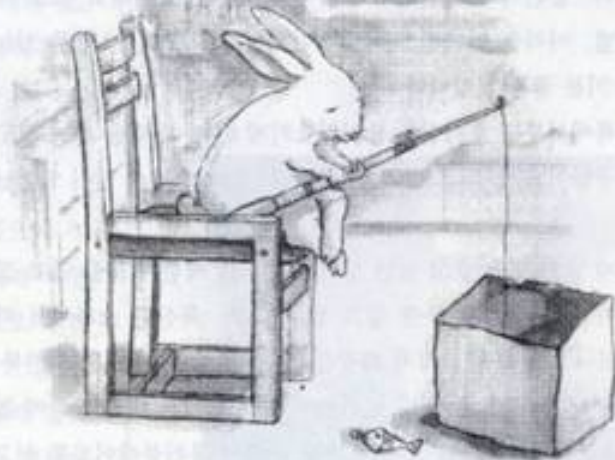
이야기 전개에 따라 무채색을 사용한 장면과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한 장면이 대조를 이루게 표현한 점, 화면의 크기의 변화가 있어 보는 눈이 즐겁습니다.

글도 읽기 편하게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써있는 점도 그렇습니다. 다만 토끼의 표정에 변화가 없는데 이것은 작가의 다른 의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인공 토끼의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끼를 의인화해서 온통 집안을 탐색(?)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들의 모습인지 재미있으며 보여달라고 하며 특히 장면마다 토끼 옆에 떨어진 토끼똥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토끼똥이 떨어진 그림이 어디 있나 숨은그림찾기까지 했어요.

식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죠.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추카! 추카! 뽀뽀뽀!!

이정미 ·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생.일!

생일?

생일이란게 뭘까요? 오늘이 제 생일이라네요.

어린이집에 다니게된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통 분위기 파악이 안돼요.

"생일 추~카합니다. 생일 추카합니다~."하는 생일노래는 많이 들어보았는데...

점심식사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부엌에서 수박에, 포도에, 과자며, 요구르트며,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커다란 접시에 담아서 교실 책상 위에 쪽- 올려놓으셨어요.

교실 벽에는 예쁜 동물들이 뛰노는 그림판이랑 풍선들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구요.

저랑 또 한 명 우리 반 여자친구는 머리에 번쩍번쩍 빛나는 왕관을 쓰고, 친구들과 다른 책상에 앉았어요.

친구들 상에는 음식을 조금만 놓아주시고, 우리 상에는 수북히 쌓인 접시를 놓아주시는 선생님이 어찌나 예쁜지, 함박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빨강 초, 노랑 초가 두 개 쫓힌 케익을 우리 앞에 놓아주셨죠.

너무 기쁜 나머지 손가락으로 크림을 발라서 한 입에 쪽...

하지만 선생님께서 조금 있다가 먹자고, 그래야 한다고 말해서 나는 꾸욱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친구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자꾸만 손을 내밀고, 심지어는 때를 쓰며 바닥에 뒹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나의 멋진 생일상에 와서는 케익을 둘러보고, 포도를 따먹고...

흑흑..난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친구를 확!물어서 경고를 주려는 찰나! 선생님한테 붙잡혔지 뭐예요.

억울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금세 우리 선생님이 케익과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줘버리셨어요.

친구들은 순식간에 예쁘게 앉았고 선생님은 "멋진 친구들"이라며 박수까지 쳐주시는 거예요. 난 내 생일상의 그득한 음식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림에 너무 당황스러워 입을 못 다물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어쩔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난 잔칫날을 망쳐선 안될 것 같아서 꼭 참고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기로 했지요. 물론 복수는 다짐하면서요...

어느덧 잔치는 무르익어, 선생님은 우리 둘한테 쏘붙을 "후~" 하라고 하셨어요. 저쪽에서 사진기는 대기중이고, 난 숨을 크게 모아 쉬며 입을 오므리려는데, 오! 이럴 수가!!

어느 틈에 친구들이 우- 모여들더니 확- 하고 다 꺼버렸어요.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으-앙"

나의 생일 잔칫날은 그렇게 끝이 났고, 나는 그날 이후 '복수혈전' 한 판 없이 그날의 기억을 행복한 추억으로 묻고 신나게 지냅니다. 왜냐구요?

아, 금세 한바탕 울고 난 뒤 이제 잔치는 끝난 줄 알았더니 진짜 잔치는 그때부터더라구요.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나를 막 껴안고 "차라해", "건강해라"하며 뽀뽀를 해 주는데 그 기분,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를 걸요?

'아 이런 게 생일 잔치구나, 맛있는 것 나눠 먹고, 친구들이 뽀뽀 해주고, 사랑해주고...

매일 매일 생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 정원이 생각

포구나무이야기

윤진숙 · 부산, 포구나무어린이집

01 뽀라 뽀라 내가.....

하루종일 열심히 뛰어 놀고 이제 조금 힘이 빠져 차분해진 오후 시간.

'쿵... 쿵...'

어디선가 익숙하지만 매번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가... 그와 동시에 아이들이 갑자기

"앗! 뽀 냄새." 하며 시끌시끌하더니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경민이에게 모든 시, 선, 집, 중!!

"아이, 뽀 냄새야." "뽀 썼대요."

아이들이 놀리자, 경민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금세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직전이었다.

바로 그 때 한 아이가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아이다! 아이다! 석신이가 뽀 누고 있다."

그러자 종전까지 경민이를 놀리던 아이들은 달려가서 서둘러 사과를 했다.

그러자 누명을 벗었다는 자신감과 억울함에 복받친 경민이, 씩씩하게 바지를 내리더니

"뽀라! 뽀라! 내 뽀 안 썼다!"

02 휴지통???

교실에 종이가 떨어져 있다.

선생님 : 경민아! 저 종이 휴지통에 버리고 오나라.

경민 : ?? 네-에? 휴지통요??

쓰레기통은 있는데 휴지통은 없는데—

03 비싼 피자??

♪ 나는 쿵 땡글땡글 쿵 후라이팬에 들어갔어요~~
어어어어 아이 뜨거~~ 어어어어 아이 뜨거~~
내멋대로와 쿵쿵이들이 모여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다같이 : 나는 쿵 땡글땡글 쿵
홍익이 : 피자 속에 들어 갔었죠.
다같이 : (무슨 말이 나올까 기대하며) 어어어어
홍익이 : 비싸-비싸
홍익이의 말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하하하!!
선생님 : 홍익아, 왜?
홍익 : 우리 엄마가 피자는 비싸다고 했어요.

04 어느 양산??

아이들 귀가 시간에 있던 일.
그 날 저녁은 부산지부 회의가 있던 날이다.
윤신 : 별신선생님, 오늘 회의하러 어디로 가는데요?
별신선생님 : 음, 양산.
옆에 앉아 듣고 있던 현준이가 우산을 들며
현준 : 양산 여기 있네. 여기!
♪ 비가 죽죽 온다. 소낙비가 죽죽 온다 ~♪

육아일기

놀이터에서

전경숙 · 경기지부

오후 늦게 소연이, 소정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남자 아이 둘이 서로 말다툼을 한다. “야, 남자아이가 치마 입었다” “아니야, 여자아이가 머리가 짧은 거야.” “아니야...”

“너석들, 싸우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지. 소정이가 머리끝이 등에 자꾸 닿아 곪아서 박박 민지 얼마 안되어서 있었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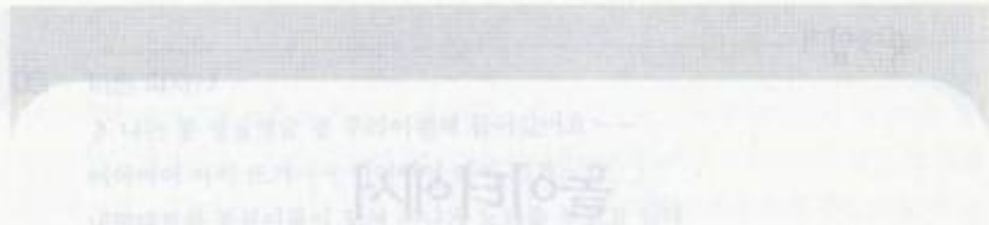
지금도 소정이를 데리고 나가면 그놈 잘생겼다. 머리한번 시원하게 깎았는데,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란.....

머리만 짧으면 남자아이인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가 여자라고 우기면 여자로 인정해주는 세상인데..... 다양한 개성이 존재하는 세상인데.... 긴 머리 남자, 여자 택시운전기사, 여자의사, 남자간호사, 여자축구선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별로 이상하지 않은 세상 아닌가. 어쨌든 고정관념과 편견이 많은 나도 이 다문화적인 시대를 살아가려면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겠다.

사실 오늘 쓰려는 내용은 놀이터에 대한 이야기이다.

넓은 집에 살다가 딱 그 집의 반이 되는 평수로 이사하면서 별 불만이 없었다. 집이란 것이 넓으면 좋겠지만 좁으면 좁은 대로 그에 맞추어서 적응하면서 살면 되니까. 가령 집에 서재로 쓸 공간이 없으면 도서관이나 서점을 자주 이용하면 그만이고, 아이들 놀 공간이 없으면 놀이터에 자주 데려가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살던 집은 너무 넓어서 나도 애들도 바깥출입을 거의 안 했다. 지금의 집으로 이사오면서 제일 쾌재를 부른 것은 소연이다. 놀이터가 널찍하고 놀이기구도 많고 놀이터를 빙 두르면서있는 벤치와 앉아서 쉬는 사람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에 정자와 농구대까지 내 마음에도 쏙 들었다. ‘그래 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주리라.’

처음 이사와서는 자주 나가다가 피가 나서 미루고, 여름에 한낮이 되어서 나가자고 하면 그 땡볕에 나가면 데어 죽을 것 같아서 못 나갔는데, 며칠 전 아빠 출근하는데 소정이가 아빠 따라간다고 하도 울길래 놀이터에 데리고 갔더니 그 시간에 아줌마 몇이랑 아이들이 나



와서 놓고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 생각엔 애만 붙잡고 사는 사람 인가보다. 집안 일은 어떻게 하고 이 시간부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있을까 했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아침에 일찍 집안 일하고서는 아예 도시락에 간식까지 생겨 가지고 나와서 놀게 하고는 낮잠시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소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소정이가 여간 심심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가서 놀라고 해도 오전에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거의 한시간 두 시 사이에 오니까 그때까지는 나를 붙잡고 놀라고 한다. 집안 일을 할 때는 그나마 기다려 주는데, 집안일 마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소정이 잘때까지는 엄두도 못 내고, 옆집에 놀러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수다떨고 소정이는 소정이대로 그 집 아이랑 놀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전에는 아이들이 없으니 두 시가 넘기를 기다리며 무료함을 TV로 달랠 때가 많았다.

한동안은 TV 중독중에 걸려서 지낸 적도 있다. 하루에 드라마 네 다섯 편씩 보고, 연속극은 전에 다 본 것인데도 재방송하는 낮 시간에는 꿈쩍 않고 누워서 TV시청을 하는 것이다. 내 나름대로 고집감, 무료함을 달래는 방법이었다.

그러던 중 놀이터에서 아줌마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평균적으로 네 다섯 명씩 있고, 만나자고 약속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일 있으면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아이가 자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잠깐 불일보고... 다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 공통주제도 아이들일 수밖에.. 놀이터가 아이들에게만 해방 공간인 줄 알았는데, 엄마들에게도 숨통이 트이는 공간인 것을 진작 왜 몰랐을까.

언젠가 후에 집에 놀러 갔는데, 앞 뒤 집이 할머니부터 새댁까지 음식도 나누어먹으면서 언니 동생하면서 지내는 것이 그렇게 부럽더니.... 음식까지 나누어 먹지는 못해도 누군가와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거기다가 소정이라도 땅을 밟고 놀이기구도 타고 하면서 몸이 좋아질 테니까...

아줌마들이 냉홍차나 냉커피 타 가지고 와서 나누어먹던데 나도 내일은 미숫가루를 타 가지고 나가야겠다....

갯벌

임미란 · 회원

올 여름 휴가 잘 보내셨는지요?

혹여 있는 자연을 맘껏 누리고만 오시진 않으셨는지.

오늘은 더 추워지기 전에 바다와 인간을 살리는 모태 갯벌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찬 냄새나고 망둥이 뛰고 계와 갯지렁이들이 모여 사는 그곳.

음~~~ 여기, <http://www.wetland.or.kr/> 갯벌자연생태정보에 오세요.

갯벌이란 무엇인지에서부터 700여종의 동식물 정보가 동영상과 사진자료와 함께 있는 자연생물상, 인천전반의 갯벌과 해양 육상의 환경자료에 대한 측정자료가 있는 환경자료실, 그리고 갯벌용어풀이와 자료실까지 없는 게 없이 잘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갯벌사랑에서는 갯벌탐방에 대한 안내로 준비사항과 가 볼만한 곳에 대한 안내와 갯벌에 가서 할만한 각 영역에 맞는 놀이와 실험과 토론 등까지 준비되어 있어 이 사이트만 잘 이용하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맘먹고 가서 알차게 활동하고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죽어도 가기 힘들다 하는 경우에도 갯벌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훌륭한 동영상과 사진자료들이 충분하고 갯벌 갤러리에서는 사진작가들의 사진과 갯벌 민요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참 동영상을 보실 때는 플러그인을 먼저 설치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런 거 설치 안 하구서는 비디오 자료 어디 있냐고 항의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후후~~~ (누구라고 잘못해)

그 외에도 <http://www.gapulsarang.com.ne.kr/> 갯벌사랑 이란 사이트에 가시면 갯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세계의 갯벌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갯벌여행이야기에서는 갯벌자연생태에서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소개인데 반해서 이곳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갯벌에 대한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참, 갯벌체험을 하러 가실 때는 밀물과 썰물에 대한 시간표를 알아보고 가시는 거 잊으시면 안돼요.

갔는데 물이 가득 차있으면 서늘한 날에 수영을 할 수도 없고 낭패잖아요?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

언론세무조사를 바라보며...

박상희 · 회원

한동안 국세청과 공정위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것은 '언론 세무조사' 때문이었다. 국세청과 공정위는 신문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탈세를 중요한 혐의로 보고 조사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계속적으로 논란되어온 언론의 도덕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었다. 즉, 정부의 입장과 조사대상자인 언론사측의 첨예한 대립양상이었다. 정부는 그 동안 '언론탄압'의 주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서 미온적 입장을 취해왔고 그 결과 언론사는 대기업의 반열에 오를 정도의 부를 축적하는가 하면 '언론자유'라는 미명하에 반공이데올로기의 보고로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개인탈세조사가 오랜 동안 거론되어 왔었고 드디어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언론사측의 입장은 이와 상이한 것으로 언론사 대표들에 대한 은행구좌 조사를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언론을 탄압'한다고 맞서고 있다. 각각의 주장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그 동안 언론사들이 어떻게 성장하였고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를 흔히 조선, 동아일보로 본다. 특히 조선일보는 전체 신문구독률의 60%이상을 차지하면서 명실공히 한국언론의 대표주자이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어떠한 신문이었던가? 일제하에서 '민족신문'의 가치를 내걸고 발간되었지만 곧바로 내용의 질을 전환하여 가장 열렬한 일제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신문이었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철저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언론의 공공성은 차치하고라도 무수한 애국지사들을 감금, 암살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해주던 신문이기도 하였다. 즉,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대표적인 언론사로서 정치권의 든든한 이론적 후원자가 되어준 대가로 신문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군사정권시절에는 군사쿠데타를 정당화 및 미화하였고, 광주 민주화항쟁당시에도 그 많은 죽음 앞에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너무도 충실히 이행하였다. 덕분에 많은 민주적인 신문들이 폐간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구독률 1위의 명예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다. 동아일보도 순간순간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나름의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조선일보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즉, 한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를 흔히 조선, 동아일보로 본다. 특히 조선일보는 전체 신문구독률의 60%이상을 차지하면서 명실공히 한국언론의 대표주자이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어떠한 신문이었던가? 일제하에서 '민족신문'의 가치를 내걸고 발간되었지만 곧바로 내용의 질을 전환하여 가장 열렬한 일제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신문이었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철저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언론의 공공성은 차치하고라도 무수한 애국지사들을 감금, 암살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해주던 신문이기도 하였다. 즉,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대표적인 언론사로서 정치권의 든든한 이론적 후원자가 되어준 대가로 신문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군사정권시절에는 군사쿠데타를 정당화 및 미화하였고, 광주 민주화항쟁당시에도 그 많은 죽음 앞에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너무도 충실히 이행하였다. 덕분에 많은 민주적인 신문들이 폐간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구독률 1위의 명예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다. 동아일보도 순간순간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나름의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조선일보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즉, 한

겨레신문이 전국민들 대상으로 주주를 모집하여 민주언론으로 나오기 전까지 우리 곁에는 언론사다운 언론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세무조사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지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했던 언론사들이 이제 서야 '언론자유'나 '사생활보호'라느니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다.

정당한 정권교체가 거의 없었던 지난날 시절에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언론의 힘은 무시의 대상이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절 언론사의 세무조사대상에 한번도 거론되어본 적이 없었다. 해방이후 50여 년이 지나면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기업으로서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 시점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국민의 60%정도가 이번 세무조사를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오고 대다수의 민주,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구독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요즘, 현재 국민들은 이전의 언론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언론사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행정적 조치의 탈세혐의 조사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언론,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실현시켜줄 수 있는 언론이라는 언론의 임무에 대한 엄중한 국민적 문제제기로 받아들일 때 아픔을 딛고 한 단계의 높은 질의 언론사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를 흔히 조선, 동아일보로 본다. 특히 조선일보는 전체 신문구독률의 60%이상을 차지하면서 명실공히 한국언론의 대표주자이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어떠한 신문이었던가? 일제하에서 '민족신문'의 가치를 내걸고 발간되었지만 곧바로 내용의 질을 전환하여 가장 열렬한 일제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신문이었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철저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언론의 공공성은 차치하고라도 무수한 애국지사들을 감금, 암살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해주던 신문이기도 하였다. 즉,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대표적인 언론사로서 정치권의 든든한 이론적 후원자가 되어준 대가로 신문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군사정권시절에는 군사쿠데타를 정당화 및 미화하였고, 광주 민주화항쟁당시에도 그 많은 죽음 앞에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너무도 충실히 이행하였다. 덕분에 많은 민주적인 신문들이 폐간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구독률 1위의 명예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다. 동아일보도 순간순간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나름의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조선일보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즉, 한

한국보육교사회는 조선일보를 보지 않습니다.
언론개혁운동을 지지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를 흔히 조선, 동아일보로 본다. 특히 조선일보는 전체 신문구독률의 60%이상을 차지하면서 명실공히 한국언론의 대표주자이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어떠한 신문이었던가? 일제하에서 '민족신문'의 가치를 내걸고 발간되었지만 곧바로 내용의 질을 전환하여 가장 열렬한 일제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신문이었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철저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언론의 공공성은 차치하고라도 무수한 애국지사들을 감금, 암살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해주던 신문이기도 하였다. 즉,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대표적인 언론사로서 정치권의 든든한 이론적 후원자가 되어준 대가로 신문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군사정권시절에는 군사쿠데타를 정당화 및 미화하였고, 광주 민주화항쟁당시에도 그 많은 죽음 앞에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너무도 충실히 이행하였다. 덕분에 많은 민주적인 신문들이 폐간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구독률 1위의 명예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다. 동아일보도 순간순간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나름의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조선일보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즉, 한

이제는 보육교사가 나설 때

최순옥 · 순천향대, 성공회대 강사

나는 "죽일 X"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이 글을 쓰기로 맘을 먹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현 보육교사회)를 만들어만 놓고 무책임하게 떠나가 버린 옛날 사람(들리는 말 그대로 옮겼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마는 옆에서 보고만 있기에는 안타깝고 답답해서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의 위치는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교사의 현실은 어떤가?

주 5일 근무제가 곧 시도된다고 떠드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직도 보육교사는 인간다운, 교사다운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차마 얼마라고 말하기 어려운 저임금에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 더구나 교사회외나 행사가 있는 날과 환경구성이나 교구제작을 하는 날은 밤을 새기가 일수인 말이 보육교사이지 생산직 노동자보다도 못한 수준의 열악한 근무조건이다.

지난 7월18일 국회본회에서 개정 여성 노동법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여성단체와 노동조합이 지난 1년여 동안 여성노동법 개정운동과 함께 살아온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 개정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지원마련과 모성보호에 있어서 사회분담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 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할 때도 당사자인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방송에 나가 어려운 환경과 보육현실을 눈물로 호소하였고, 국회의사당 앞이든 어디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며 소리내어 외쳤던 성과였다. 그렇다고 보육교사들도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자는 뜻은 아니지만 보육교사의 권익보장은 다른 어느 누구도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조용히 암전하게 있는 한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시설장들 중에 보육철학이 뚜렷하고 개혁의 의지가 있는 몇몇 이 모여 모임을 만들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해 뛰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육교사의 권익 향상문제를 이들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보육교사회 임원 몇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더구나 보육교사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당사자인 보육교사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과거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정부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한국보육교사회 전신)를 어느 논의구조에도 끼워주지 않았다. 오히려 불순단체로 몰아붙이고 골치 아픈 존재로만 여겨왔었다. 그러나 그런 정부의 시각과 관계없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꾸준히 보육문제를 제기하고, 이해하려고도 받아들여려고도 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싸우고 설득하며, 어려운 보육환경을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로 지금은 중요한 논의구조나 정책입안 과정에 언제나 보육교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활동을 하기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각도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아직도 보육교사의 수준은 1년365일 마음놓고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보수교육 한번 마음놓고 받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열악하기 만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근무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보육의 질 향상이란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보육교사회가 이름에 걸맞은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희생과 양보만이 미덕은 아니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 고생하는 것만큼의 노동의 대가도 정당하게 받아 내야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아야 한다.

보육교사들이 힘을 모아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보육교사와 관련 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열원하고, 교사 선언문에 있는 자주성이 있는 교사,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는 교사,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교사,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하는 교사,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교사로 설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실력 있는 교사들이 2년, 3년만에 지치고, 건강이 나빠져서 보육현장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슬픈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다시 한번 보육교사들의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리고 하루빨리 보육환경이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보육교사의 위상이 높아져서 자부심 많은 보육교사 밑에서 꿈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니까 졸업 후에 보육교사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방과후보육 활성화 시켜라

아래의 글은 본 회 홈페이지(www.kdta.or.kr)의 곰곰이의 토론태양에서 펴온 글입니다.

내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이다.
내 아이는 내가 출근을 하면 일어나 동생 챙기고 밥상에 차려놓은 간단한 아침을 먹고 어린이집에 동생을 데려다 주고, 지는 학교를 간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와 버스를 타고 방과후교실에 간다.
의자와, 책과, 컴퓨터가 전부인 곳으로.
점심은 다른 곳에서 먹고, 아파도 누워서 쉴 공간이 전혀 없다.
물론 소파에 누워있어도 되겠지.
화장실도 가까운 데 없다.
저녁엔 친구와 버스 타고 와 어린이집에서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가 있다.
내가 내 아이들보다 집에 일찍 가 본적이 큰데 학교 입학하고 한번도 없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날 쓰린 가슴을 안고 출근해 전화를 한다.
얼른 일어나 아침 먹고 문 잠그고 가라고...
저녁에 내가 당직인 날(나도 어린이집 교사) 전화를 한다. 문 잠그고 TV키고 있으라고,
배고르면 냉장고에서 우유 꺼내 마시라고 한다.
올해는 눈물이 많아졌다
난 강한 엄마인줄 알았는데 아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

일터로 주부들을 내 물고 육아에 대한 대책은 없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방과후에 대한 활성화 및 전국적으로 적어도 동 단위로 1개씩은 활성화를 시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아래의 글은 서울시보육정보센터(children.metro.seoul.kr)의 자유토론태양에서 펴온 글입니다.

보육현장에 있는지 5년 정도 되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몇 년을 다녀도 보너스도 없고, 몇 년을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그만둘 때 퇴직금도 없이 그냥 소모성 용품처럼 허무하게 그만 두어야 하나요?

공장의 생산직 직원도 4대 보험이며, 퇴직금 혜택도 받는데, 우리 보육교사들은 현장에 있는 동안에는 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겨우 최꼬리 만한 월급만으로 감수해야 하고, 보너스, 퇴직금은 커녕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조차도 들어주기를 꺼려하는지요?

부득이 하게 교사생활을 그만두거나 실직하게 될 때, 미리 미리 원장님께서 고용 보험이라도 들어주시면, 하다못해 실업급여나, 고용보험퇴직자의 재취직훈련 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우리 보육교사는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놀이방 및 어린이집 원장님들, 물론 운영의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교사들을 위해 한 달에 5천원도 안 되는 고용보험료조차 아까우신지요?

진정 교육자적인 소양이 있는 원장님이라면, 교사들의 처우를 위해 이정도 짧은 달연히 부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여러분! 자신들이 산재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있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만일 들어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고, 최소한의 혜택은 누리고 교육자적인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보육교사근무환경 실태조사’ 안내

본 회에서는 2001년 하반기에 ‘보육교사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의 근무환경은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매우 중요한 요인 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보 육교사에 관한 근무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전국의 보육교사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보육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정책은 현재의 근무 환경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이 전제되어야만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어린이집으로 발송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실태조사 설문지를 받으신 보육교사들은 성 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서 재발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응답이 귀하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주지 못하겠지만 정확한 응답들이 종합되었을 때에만 보다 합리적인 정책 건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보육교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 이, 사실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이 우리 나라 보육사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길라잡이 무료배포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에서는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활용 가능한 사이버 정보를 활동주제별로 분류하여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 무료로 배포한다.

- 대 상 : 서울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 신청접수 : 2001년 9월 30일까지
- 신청전화 : 02-2271-1548
- 신청메일 : kdta@chollian.net (받는사람이름/주소/전화번호/어린이집명)
- 배 포 : 2001년 8 ~ 9월 중

보육교사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교육

16시간 교육이 끝나면 우리 어린이집에 홈페이지가 생긴다!!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에서는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어린이집 홈페이지 제작 교육과 인 터넷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한다.

- 대 상 : 서울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 일 시 : 1차교육 - 2001년 9월 15일(토)16(일), 22일(토)23(일) 2시-6시
2차교육 - 2001년 10월 6일-10월 27일 매주 토요일 2시-6시
- 장 소 : 진보네트워크 교육장(4호선 숙대입구역)
- 참 가 비 : 만원(한빛은행 145-08-009548 김진숙)-입금시 신청됨
- 신청접수 : 02-2271-1548 (담당자:이선주)
- 신청메일 : kdta@chollian.net (몇차교육인지/신청자이름/주소/전화번호/어린이집명)

장애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한 보육교사, 시설장 연수 "장애아동 이해하기와 통합보육실제"

- 대상 : 전국의 보육교사, 시설장 각 50명
- 일시 : 2001년 10월 20일(토) 오전 9시~ 18시
- 장소 : 한울복지관 3F 소강당 및 강의실
- 문의 : 02-2275-8505 (담당자 : 이경녀)
- 참가비 : 1만 오천원 (자료집 · 중식제공)
- 연수내용 및 시간표

시간	내용		진행자	
	교사용	시설장용	교사용	시설장용
09:00~09:30	인사말 및 단체 소개		이윤경	
09:30~11:00	일본의 장애통합 보육과 장애에 대한 시각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	
11:00~11:10	휴식			
11:10~12:30	장애아동의 행동 특성 이해하기		윤선아	
12:30~13:30	중식			
13:30~15:30	장애통합보육 실제 1 - 일상활동과 통합보육	장애통합보육 운영사례	김수진	조선경
15:30~15:50	휴식			
15:50~18:00	장애통합보육 실제 2 - 놀이를 통한 통합보육	장애통합시설 에서의 부모갈등 중재와 상담	정미란	이창미

- 강사 소개
- 1) 윤선아 - 서울대학 병원 조기 치료실 책임교사
- 경인전문대 출강

- 2) 조선경 - 중앙대 유아교육학 석사
- 이웃사랑어린이집(장애통합보육시설) 시설장
- 3) 이창미 - 곡교어린이집(장애통합보육시설) 시설장
- 숙대 아동복지학 박사과정
- 4) 김수진 - 곡교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교사
- 이대 특수교육학 박사과정
- 5) 정미란 - 이웃사랑어린이집 통합교사
- 단국대 특수교육학 언어치료 전공 석사과정
- 6) 최영신(통역) - 오사카시립대 사회복지전공
- 중앙대 출강

인터넷 활용 현장활동 현장사례공모전 [인터넷에서 놀자]

[인터넷 길라잡이]를 활용한 현장 교육사례를 공모하여 시상합니다.

- 신청접수 : 2001년 10월 24일 - 31일 (10월 31일 당일소인 유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E-mail : kdta@chollian.net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 시 상 :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가작 3명
2001년 11월 10일 오후 1시 서울시보육정보센터 교육장
- ◆ 당선작은 본 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 회에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서울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보육교사
- 문의전화 : 02-271-1548 (담당자:이선주)
- 주 최 :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 후 원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내 가정보육시설 설치시 입주자의 동의서 첨부 폐지

보육관련행정지침 중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가정보육시설의 설치근거를 두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4(별표1)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내 가정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운영하여 왔으며, 다만 우리 부의 지침으로 공동주택내에 설치된 가정보육시설이 공동주택 본래의 기능인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정보육시설 설치시 아파트의 경우 해당동의 입주자 2/3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조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기된 민원을 계기로 동 규제위원회로부터 가정보육시설 설치시 입주자 2/3이상의 동의서 첨부조건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미근거 규제라는 이유로 이를 정비하라는 의견이 있어, 우리부에서도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하나,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동사항을 신고시 폐지토록 통보하니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자연생태공원 가을특별프로그램 들쭉나무 관찰교실

장소: 길동자연생태공원 야외강의장 및 공원
대상: 초등학생 및 학부모
기간: 2001.9.1 ~ 9.30.(매주 월요일)
시간: 16:00 ~ 18:00
인원: 120명(1회 30명×4회)
참여방법: 사전예약
교육비: 무료
준비물: 필기도구, 스케치북, 돋보기, 도감 등

즐거운 곤충 관찰교실

장소: 길동자연생태공원 야외강의장 및 공원
대상: 초등학생 및 학부모
기간: 2001.9.1 ~ 9.30.(매주 수요일)
시간: 16:00 ~ 18:00
인원: 120명(1회 30명×4회)
참여방법: 사전예약
교육비: 무료
준비물: 필기도구, 스케치북, 돋보기, 도감 등

오감체험 교실

장소: 길동자연생태공원 야외강의장 및 공원
대상: 초등학생 및 학부모
기간: 2001.9.1 ~ 9.30.(매주 목요일)
시간: 16:00 ~ 18:00
인원: 120명(1회 30명×4회)
참여방법: 사전예약
교육비: 무료
준비물: 필기도구, 스케치북, 돋보기 등

풀벌레 관찰교실

장소: 길동자연생태공원 야외강의장 및 공원
대상: 초등학생 및 학부모
기간: 2001.9.1 ~ 9.30.(매주 금요일)
시간: 16:00 ~ 18:00
인원: 120명(1회 30명×4회)
참여방법: 사전예약
교육비: 무료
준비물: 필기도구, 스케치북, 돋보기, 도감 등
문의: <http://www.parks.seoul.kr/kildong>

정동극장 '전망2001' 시리즈 IX - 줄인형 콘서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자! 기막히게 재미있는 인형극
줄인형 콘서트
탁구공 인형, 밧줄인형, 요구르트병 인형 등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와 상하이 트윈스트를 부르고, 섹스폰과 피아노를 정교하게 연주하는가 하면, 사물놀이 인형팀이 등장하여 기막힌 풍물연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줄인형콘서트"입니다.
일시: 2001년 10월 5일(금) - 10월 20일(토) 저녁 7시 30분(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 정동극장
주최: 정동극장
제작: 현대인형극회
입장료: S석 - 20,000원 / A석 - 15,000원
문의: 02-773-8960(정동극장)

전시회 - 한국토기의 아름다움

투박한 토기에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선사 시대의 빗살무늬토기, 붉은색 간토기에서부터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민무늬 도기까지 토기의 양식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는 무엇보다 '토기' 하면 역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술사의 한 분야로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시: 10월 31일까지
장소: 서울 신림동 호림박물관
문의: 02-858-2500

중요소식

- 7월2일 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7월2일 '보육교사 근무환경실태조사' 1차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백선희 교수님, 원명순 원장님, 이인희 선생님, 진귀수 회장님, 최영신 선생님 등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 7월4일 월간 <더불어 사는 삶>에서 보육환경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본회 사무실로 취재를 와서 이윤경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 7월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연대모임에서 방과후보육관련에 대한 보충회의가 있었습니다.
- 7월5일 ILO(국제노동사무소)의 프로젝트 연구원과 이윤경 공동대표가 한국의 보육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국의 여성노동과 복지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프로젝트입니다.
- 7월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연대모임에서 방과후보육관련에 대한 2차 보충회의가 있었습니다. 방과후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7월12일 김홍신의원실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7월12일 여연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과정에 대한 보고와 이후 보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위해 여연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7월13일 여성부에서 주최한 <가정과 직장 양립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성부에 가족친화적 정책에 대한 연구와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
- 7월16일 노동부 산하 중앙인력개발센터의 보육인력훈련기준에 대한 검토회의에 이윤경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직자 재교육, 훈련 과정으로 보육교사양성을 하는 것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7월21일 수도권여름연수 "종알종알 용알용알 애들이! 이야기하며 나들이 가자"를 이화여대 가정관에서, 전라권 여름연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옛놀이와 노래"를 광주에서 실시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강의를 해주신 문재현 마을공동체연구소장님과 민하영 교수님, 서은희 공동대표, 강영신, 고정미, 유희원, 최미라, 박은경, 윤미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경아, 박부자, 안경자, 이현주 등 지부 교육부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7월23일 여성부에서 주최한 <한국여성의 가정과 일의 양립에 대한 국민의식조

- 사 보고> 조찬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7월24일 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7월24일 관악지역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에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7월25일 복지부에서 주최한 보육발전계획안 검토 보육발전위원회 최종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보육교사교육원의 폐지와 보육교사의 법정 근무시간 준수 등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7월26일 여연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양육모델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육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었으나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호라는 두 가지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 7월26일 등근나라어린이집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미디어 바로보기' 부모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미디어 부모교육은 마감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집을 다니며 강의해주신 김병록, 박영미, 이정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7월28일 2001년 중앙사업평가회의가 있었습니다.
- 8월5일 경상권 여름연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옛놀이와 노래"를 부산대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의 마지막 여름연수로 이번에도 민하영 교수님과 문재현소장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실제 강의를 맡아 진행하신 최정임, 정현옥, 김지현, 이미애, 이정인, 임정숙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8월8일 복지부에서 주최한 <보육사업 종합발전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8월9일 7월12일에 구성된 여연복지위내 연구팀의 1차 모임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임의 성격을 가족분과로 정하고 이후 모임을 선진국의 가족지원정책(보육정책 포함)에 대해 나라별로 전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가족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가족분과위원으로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와 유정은 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8월10일 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8월11일~12일 집행위 M.T가 있었습니다. 조직전망에 대해 집중논의했습니다.
- 8월14일 여성부에서 주최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공청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 8월16일 미디어 모니터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정주선생님의 강의해 주셨습니다.
- 8월23일 건강교사모임이 있었습니다.

- 상반기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평가 후 하반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 8월24~25일 여연에서 주최한 회원단체 대표자 수련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에 대한 전방지(호서대 산업심리학과) 교수의 강의와 여성운동과 여연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지은희 여연대표의 발제 및 조별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8월27일 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8월29일 전국여성노조출범 2주년 기념 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여성친화적 조직방안>이라는 주제로 여성노동자회의의 연구원들의 연구와 현장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 8월30일 여연과 공동으로 본회에서 주최한 <육아문제해결을 위한 보육현장 실무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부 소식

서울지부

- '어린이 건강과 보육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9월 15, 22일에 회원무료 강의를 실시합니다.
- 8월 18일 문화홍보부에서는 영화관람을 했습니다. '타인의 취향'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 9월 8일 오감을 통한 미술연구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 9월 16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거리 캠페인이 보라매공원에서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인천지부

- 9월 15일(토) 오후4시 회원 강좌로 "한지 프로젝트" 강의를 실시합니다.
- 7월 15(일) 인천보육교사회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 삼계탕잔치'가 나래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 8월 10일(금) 인천지역 보육조례 준비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 인천지부가 새집을 마련했습니다. 새집 주소는 <http://home.hanmir.com/~idta>. 우리 홈 초기화면 한국보육교사회 소개 인천지부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경기지부

- 드디어! 드디어! 준비위 꼬리를 떼 내고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 지난 8월 25일 여러 선배님들과 축하객을 모시고 무사히 창립총회를 마쳤습니다.
- 초대 지부장은 수원의 강영신 선생님, 교육부장에 부천의 박부자 선생님, 조직부장에 안산의 고영미 선생님 등 임원도 구성했습니다. 전화도 마련했대요. 031-296-8505랍니다.

- 앞으로 경기지부의 힘찬 날개짓을 기대하겠습니다.
- 통일교육소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반기 동안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따끈따끈한 통일교육이 우리 손에 들어오겠지요? 힘내서 열심히 연구하세요.

부산지부

- 7월1일 운영위원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 7월6,13,19일에 어린이 숲속체험교실 1차를 진행했습니다.
- 7월7~8일 부산여성단체연합 주최, 부산보육교사회 주최로 어린이 통일학교를 실시했습니다.
- 7월24일 시설아동지원 자원봉사 2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8월14~15일 민족통일대축전 남쪽행사에 참여했습니다.
- 8월25~26일 부산보육교사회 여름수련회(송정 해양 청소년 수련원)를 다녀왔습니다.
- 8월29일 전통교육연구소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전남지부

- 9월 15일에 교육부 모임 있습니다. '그림책의 세계'에 대해 공부합니다.
- 8월 18일, 19일에는 광주전남지부

2001년도 여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 7월 14일 수익사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봤지만 그 이상으로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였다는군요.

사람과 사람들

축하합니다

- 7월 2일에 인천의 김계임 선생님이 3.75kg의 건강한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날 더운데 몸조리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아이도 엄마도 모두 건강하기 바랍니다.
- 무더위에 눈물을 쫓 빼며 7월 30일, 광주 김영금 선생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들어가 하루종일 소리 지르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3.4kg짜리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는군요. 강이가 튼튼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 서울 동근나라 어린이집의 안경자 선생님이 9월 2일(일) 오후 1시30분 코리아웨딩홀 2층 다이아몬드실에서 결혼합니다. 늦은 나이에(?) 만나 5년간 열애를 하며 노처녀들 약을 올리더니 드디어 가나봅니다. 앞으로 신혼 재미 자랑을 또 견뎌야 할라나.^^ 잘 사세요. 두 배로-
- 서울 우리아이들의나라 우리(혁혁, 쏘 쏘) 어린이집의 이경자 선생님이 결혼합니다. 9월 22일 오후 2시20분 강북웨딩홀이래요. 신랑은 산행 동호회에서 만

났대요. 직접가지는 못해도 멀리서나마 축하해주세요. 근데요, 경자들은(죄송) 모두 9월에 결혼하나?

- 9월2일 부산의 서른네살 노처녀(요즘은 이 나이면 노처녀 축에도 못 끼죠. 특히 부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만) 코끼리(박희순) 선생님과 스물 일곱 상심한 총각 고릴라(안영주) 선생님이 결혼을 했답니다. 친구들이 너무 많아 사전을 여러 차례 나눠 찍을 정도로 축복이 넘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 오는 10월에는 말도 많고 재주도 많고 힘도 센 둘리(김영수) 선생님이 결혼을 한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잘 사세요.

- 우리 회 전 회장님인 정희연 선생님이 7월 30일 영국으로 아들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이유는 4살 어린 신랑 만나 결혼해서 살려고 간 겁니다. 누구는 좋겠다~ 누구는 좋겠다~ (이윤경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멀리 이국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하며, 정 선생님을 아는 분들은 편지 많이 보내주세요. 메일주소는 blakney34@hotmail.com입니다.
- 수원지역의 으뜸미인 이주영 선생님이 8월 26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가족들과 몇 년간 살려 갔습니다. 앞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자주 오신다니 안부들 전해 주세요. 내달이 둘째 아이 출산예정인데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회도 국제화에 발 맞추나 봅니다.

환영합니다.

- 서울지부의 주혜선 선생님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린이집은 의정부이지만 예전 서울의 북부지회와 인연이 있어 서울지부를 선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광주의 김경아 선생님이 둘째 아이 출산과 더불어 들어간 육아휴직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도담도담어린이집에 복귀하셨습니다.
- 서울지부 용선주 선생님이 새로들어 오셨습니다. 방과후 교실을 맡고 계신데 방과 후에 대한 함께 고민할 회원님들을 기다리신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울 튼튼이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김인경 선생님이 퇴직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교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인정선생님이 결심한 것이 꼭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

- 〈서울지부〉 8월 완납
- 〈부산지부〉 7월 완납
- 〈인천지부〉 7월 완납
- 〈광주전남〉 5월 완납
- 〈경기지부〉 8월 일부
- 〈평생회원〉
이윤경 40만원, 정희연 100만원
- 〈기타〉
유정은 12만원, 권혜진 5만원, 서정은 10만원, 임미란 5만원, 박금희 3만원.
- 〈자료회원〉
최은경, 연꽃어린이집, 김경순, 인천보육정보센터, 중림어린이집, 송미연, 김성희, 이은하, 이은영, 정은희, 박정혜
- 〈후원해 주셨습니다〉
유정은 8만원, 은수미 2만원, 김희자 2만원, 서은희 10만원, 박영미 5만원, 이지수 1만원, 황호정 3만원, 이선미 3만원, 김성희 3만원

- 본 회 9월 1일에 국민은행(예금주 이윤경)에 박정희 이름으로 1만원을 입금하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275-8505

본회 7·8월 월동일지

- 7월 2일 정책위원회의
- 2일 보육교사근무환경실태조사 자문회의
- 5일 영유아보육법개정연대회의
- 11일 집행위
- 11일 영유아보육법개정연대회의
- 12일 여연복지위원회의
- 13일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 21일 수도권여름연수
- 전라권여름연수
- 24일 보육정책위원회의
- 관악지역보육문제에 관한 회의
- 25일 보육발전위원회 회의
- 26일 바람직한 양육모델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28일 집행위
- 8월 5일 경상권여름연수
- 10일 보육정책위원회
- 11일-12일 집행위 M.T
- 21일 관악지역보육모임 회의
- 23일 건강교사모임
- 24일-25일 여연 회원단체 대표자 수련회
- 25일 경기지부 창립총회
- 29일 집행위

편지부에서

지난 여름 더위와 휴가로 느슨해진 기운이 다시 9월로 들어서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참 바쁘네요.

어린이집도 이제 다시 시끌벅적 분주해 졌겠군요.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느낌과 한낮의 높은 하늘 바라보며 잠깐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면.....

- 매월 1만원+회(연회비 12만원과 자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자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자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자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 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준회원이 되면.....

- 연 6만원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자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면.....

-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면.....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연수,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